

성도의 벗 3

1987

말 일 성 도 예 수 그 리 스 도 교 회



성도의 빛

1987년 3월호

“예언자의 말씀이 실린
성도의 빛을 읽읍시다.”

International Magazine © 1987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판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형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심이사도 평의회: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고문:

휴 더블류 피녹크,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임즈 엠 패러모어, 테리 에이 커스버트

통 권: 제 251권, 제 23권 제 3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87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연 제 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성 근

STOCK NO. PBMA0551KO

PRINTED IN KOREA 3/8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의 빛은
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로는 월간으로 인도네시아어,
타히티어 및 타이어로는 격월간으로 그리고
아이슬란드어로는 계간으로 발행됩니다.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빛의 해외 구독료는
항공편 10,000원(미화 12불),

선박편 7,000원(미화 8불)입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소년란

2 대판장단 메시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판장

40 성찬식 말씀을 위한 처방
크리스 크라우

8 방문 교사 메시지:
배움의 추구

42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제넷 토마스

10 복음은 우리를 함께 묶어 주는
공통의 끈입니다

44 옥수수
밭의 교훈
샌드라 스텔링스

13 범 세계적인 교회 잡지
(성도의 빛)

이십 주년

46 인생의 영향력
러셀 엠 넬슨 장로

16 사랑의 교훈
카렌 앤 앤더슨

성도의 빛 어린이란

51 심심풀이:

18 매리온 지 롬니 부대판장:

이분이 무릎꿇는 곳은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마빈 케이 가드너

52 김의 아버지

다이언 엘드로우 윈즈러

26 섬기고자 하면 사랑할지니

수잔 헤인스워드

54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메이블 존스 가봇

30 “그것은 쌍방 통행로입니다”

윌리엄 그랜트 벵거터 장로

57 경전에 나오는 인물들

58 교회 및 지역 소식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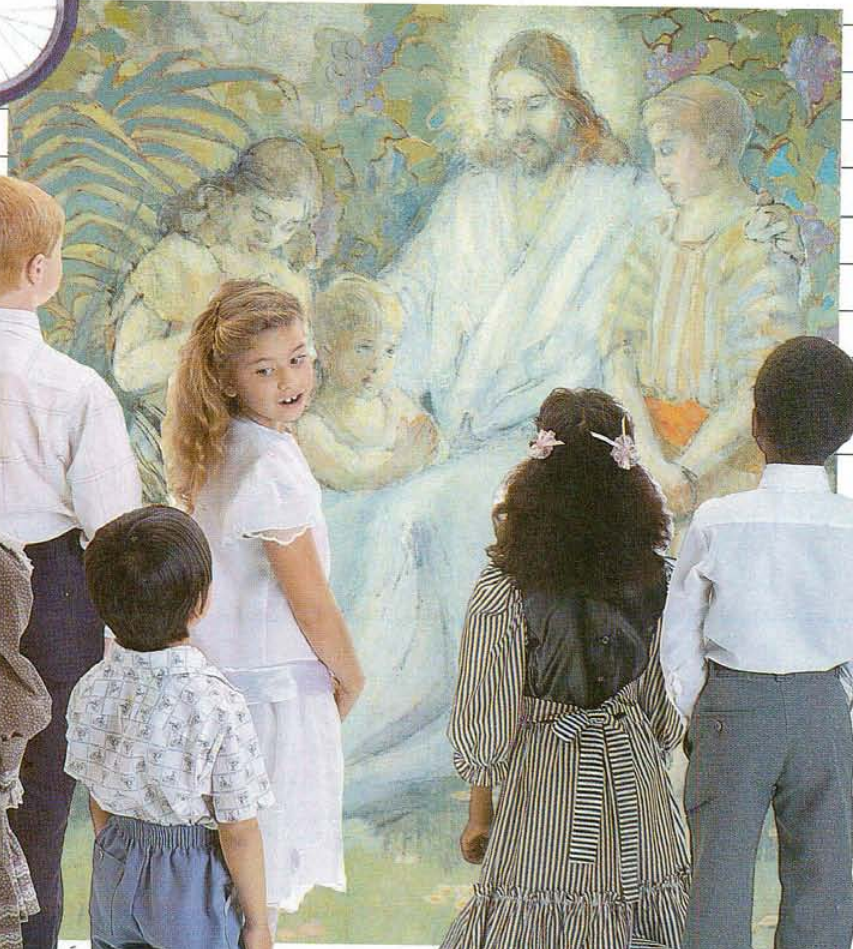
29



43



55



45



절망하지 마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우리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람의 마음이 물질적인 면에서는 물론 영적인 면에서도 사람을 실망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성 45 : 26 참조) 많은 사람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자살이 대학생들의 가장 으뜸되는 사망의 통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결이 여러 가지 필연적인 고난과 역경을 거쳐 막바지에 이른 이때, 사탄은 성도들을 절망과 실의, 낙담, 억압 등으로 성도들을 억누르기 위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말일성도인 우리는 염세적이 아니라 가장 낙천적인 백성이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한 “주가의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교성 1 : 35-36)게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려움의 때를 잘 넘기도록 교회를 인도해 주시므로써 교회가 본래대로 온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는 각자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굳게 견디어, 지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요셉 스미스서 1 : 11) 사탄의 계획인 절망, 낙담, 억압, 실의를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영을 고양시켜 우리를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는 열 두 가지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 : 회개

물론경에서 우리는 “절망은 죄로 말미암는도다.”(모로나이서 10 : 22)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좋은 일을 할 때는 기분이 좋고 나쁜 일을 할 때는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인간을 절망과 낙담으로 끌어내립니다. 인간이 죄악 가운데 일순간의 쾌락을 맛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불행합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엘마서 41 : 10) 죄는 하나님과 불화를 초래하며

영을 억압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모든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율법은 그 나름대로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 줍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는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절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 그의 짐을 벗어 가볍게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 : 28-30 참조)

2 : 기도

필요할 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단순한 시련으로부터 갯세마네의 고난에 이르기까지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해줍니다. “항상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라.”(교성 10 : 5)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간구”(요셉 스미스서 2 : 16)한다는 말씀은 어린 요셉 스미스가 거룩한 숲에 들어가서 파멸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주님께 드린 기도의 방법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괴로움에서 지켜내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3 : 봉사

남을 위해 의롭게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버릴 때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져 개인적인 문제를 염려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문제를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해질 때는 주변을 둘러보고,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역경에 빠진 사람을 찾아보며, 그에게 가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로 그의 문제를 제거해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며, 모든 것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대회 보고, 1899년 4월 6일)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데 전념하는 여인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온갖 정성을 쏟는 여인보다 영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4: 일

아담으로 인해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일이란 우리에게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해야 할 일이 있으셨으니, 우리도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일에서 손을 놓음으로써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재촉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악령조차도 게으름의 지옥문을 마주하기보다는 모래로 밧줄을 엮으려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도와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물질적인 요구를 돌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선교 사업이나, 가족 계보 및 성전 사업, 가정의 밤과 교회에서 할 일을 지명받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몇 가지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5: 건강

신체의 건강 상태는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하셨으며(교성 88:124 참조), 우리가 가진 힘 이상으로 서둘지 말라고 하셨으며(교성 10:4 참조),

매사에 중용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공을 덜하고, 첨가물이 적게 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많이 취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해 집니다. 음식은 정신에 영향을 미치며, 영양소의 결핍은 정신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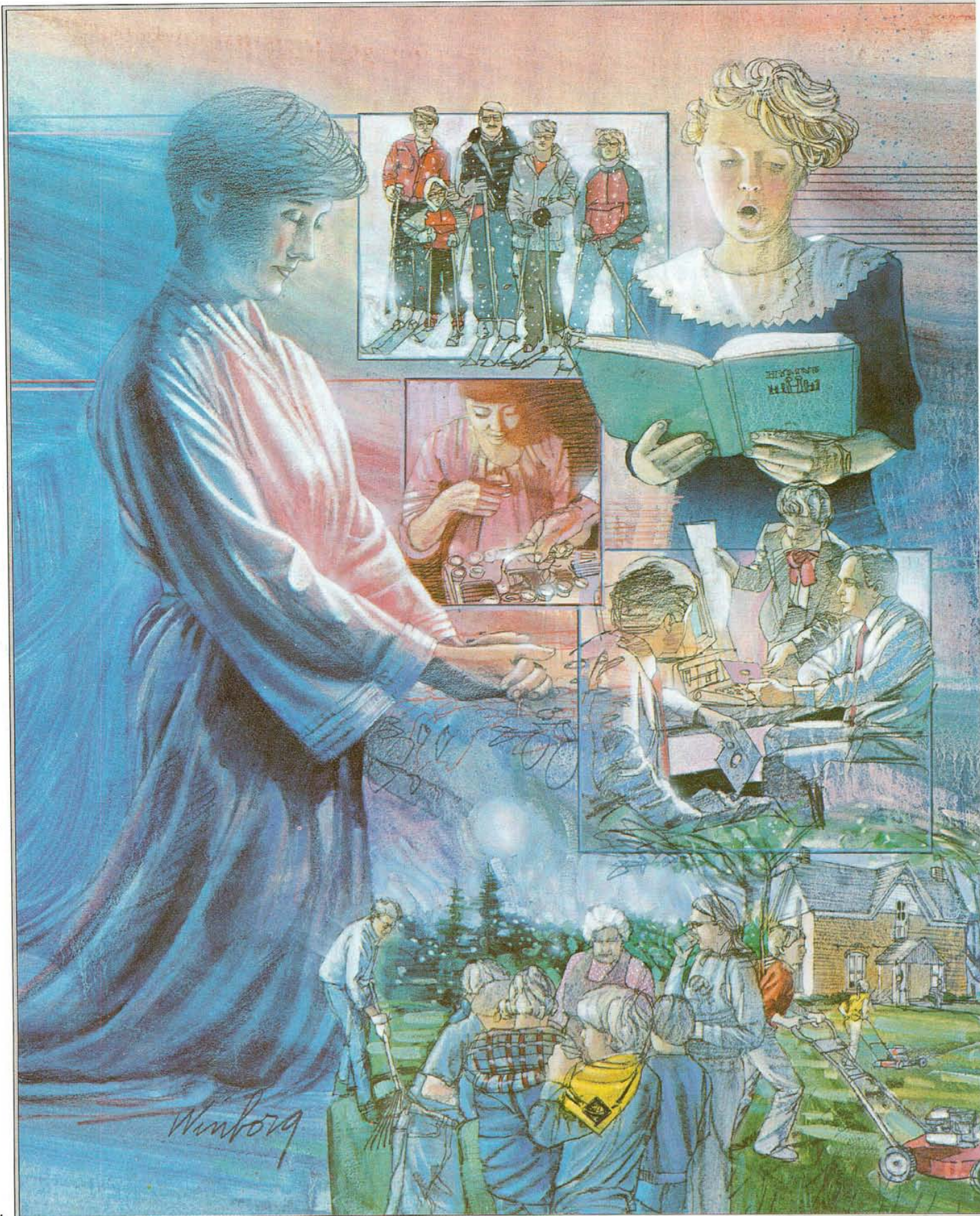
정규적으로 신체 검사를 받는 것도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휴식과 운동은 꼭 필요한 것이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건전한 오락은 우리 종교 생활의 일부로써 생활에 변화를 위해 필요하며 그것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영은 고양될 수 있습니다.

6: 독서

시련을 당하여 몰몬경을 펼쳐 읽고 깨달음과 활기를 얻고 마음에 위안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서의 시편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영혼에 특별한 양식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의 계시인 교리와 성약을 읽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은 반드시 읽어야 할 말씀이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를 읽음으로써 인도하심과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음성은 얼마나 감미로운 것입니까? 우정의 표시는 무엇이든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인간을 생동하게 합니다.”(요셉 스미스)

7: 축복

특히 곤경에 처해 있을 때나 중대한 사건이 예견될 때 신권 소유자의 안수로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도 브리감 영의 안수로 축복을 받았으며, 그의 영혼에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되시는 여러분, 아내와 자녀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생활을 하십시오.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이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것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더욱 필요합니다. 성찬은 성실한 자세로 이를 취할 때 “영혼을 축복해 주므로”(교성 20: 77, 79) 자리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몸이 불편할 때라도 자주 취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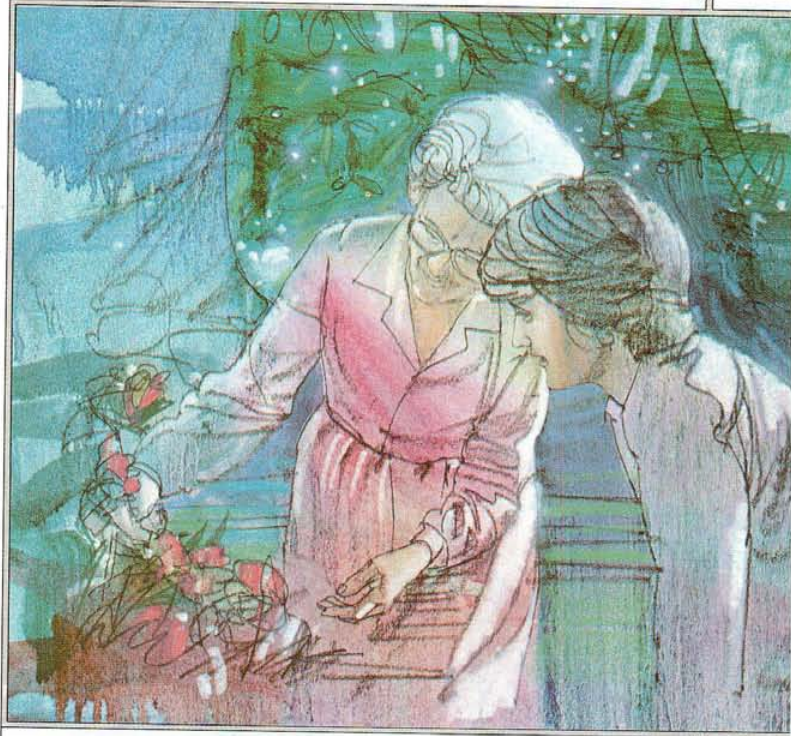
8: 금식

금식과 기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악령을 쫓아낼 수 없음을 경전은 말해 줍니다. (마태복음 17: 14-21 참조) 정기적인 금식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심신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식 주일날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금식은 스물네 시간 동안 음식과 음료수를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더 오랜 시간을 음식을 삼가며 물만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여, 금식을 마칠 때에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음식을 취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금식하려면 기도와 명상이 뒤따라야 하며, 육체적인 노동은 최소로 줄여야 하고, 경전에 대하여 또는 금식의 이유를 깊이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9: 친구

여러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며, 짐을 덜어 주며, 옹계 충고해 줄 수 있는 참된 친구의 우정은 무엇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극심한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의 음성은 얼마나 감미로운 것입니까? 우정의 표시는 무엇이든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인간을 생동하게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30 페이지)

이상적인 것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만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정은 가정에서부터 우리나라



하며 그런 다음에는 가정 복음 교사, 정원회 지도자, 감독, 기타 교회 교사나 지도자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성도들과 자주 만나 우정을 나누는 것도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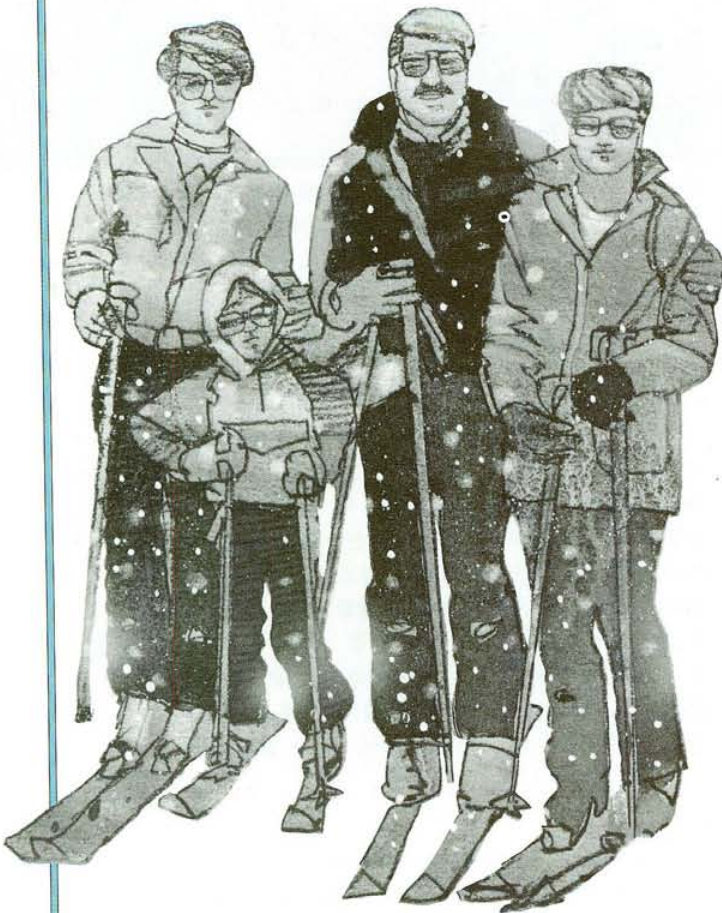
10: 음악

영감에 찬 음악은 성스러운 생각으로 영혼을 채워 주며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하고, 영혼에 평안을 안겨다 줍니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당할 때 다윗은 그를 위해 수금을 탔으며, 그러면 사울은 정신을 되찾았고 악령은 떠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6: 23 참조)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마음이 유혹으로 고통을 당할 때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마음속에 영감에 찬 가사를 간직하여 악령을 몰아낼 수 있도록 영감에 찬 시온의 노래를 암송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회 보고, 1973년 10월) 이것은 또한 괴롭고 절망적인 생각을 잊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1: 인내

조이 에이 스미스 형제가 앓고 있었을 때, 그는 사촌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환자는 이렇게

건전한 오락은 우리 종교 생활의 일부로서 일상적인 생활에 변화를 위해 필요하며 그것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영은 고양될 수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예언자는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 올지라도 낙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노바스코우셔의 탄광 갱속에 갇히거나 록키산에 깔린다 해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 신앙을 행사하고 훌륭한 용기를 보이면, 결국은 정상에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조지 에이 스미스 가족, 조라 스미스 자비스 편, 프로보, 유타 : 브리감 영 대학 출판사, 1962년, 54페이지)

악령이 여러분을 떠날 때까지 굳게 버티고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예언자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교성 121 : 7-8)

수많은 낙담과 고난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굳은 인내심을 잃지 않고 전진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광명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한동안 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시련속에서도 인간의 자녀들을 위한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영화롭게 되시고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지난 날의 승리를 회상하고 성실하다면 더욱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소망을 갖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세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을 잊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린도전서 2 : 9)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12 : 목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가치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곧 낙담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의 목표가 성취되면 다른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속적인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예수님의 준비에 대하여, 경전에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누가복음 2 : 52)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네 가지의 주요 목표 즉 영적인 면, 지적인 면, 신체적인 면 그리고 사회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물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 : 27) 우리에게 일생의 목표가 있으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베푸신 모든 덕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고, 주님의 모습을 구하며,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립보서 3:13-14)

주님과 같이 되겠다는 목표로 온 마음을 가득 채워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비판적인 온갖 생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빌립보서 2:5)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교성 6:36)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한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이사야서 26:3)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이기고 그것들을 우리 발 아래 놓는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01 페이지)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방편과 그 밖에 다른 의로운 방편을 하나님께서 강구해 두고 계심을 기억하여 우리는 절망과 낙담과 상심과 의기소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13)

그렇습니다, 삶은 시험입니다. 인생은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우리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의 거룩한 자들이 “저들은 이 세상을 해매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생각한 것 같이 우리도 때때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교성 45:13 참조)

여러분 중에는 존 번안의 저서, 천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의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이야기를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이안트 디스페어(대 역경)를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을 고양시키고 기쁨의 길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사탄의 계획인 절망, 낙담, 억압, 자포자기 등을 회개, 기도, 봉사, 일, 건강, 독서, 축복, 금식, 친구, 음악, 인내, 목표 등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활용하여 기독교 순례자들인 우리가 지상에서 보다 큰 행복을 맛보며, 해의 왕국에서는 기쁨이 충만한 최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절망, 낙담, 억압, 실의를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을 고양시켜 주는 많은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에는 회개, 기도, 봉사, 일, 건강, 독서, 축복, 금식, 친구를 사귀, 좋은 음악을 듣고, 인내하며, 목표를 세우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2. 인생은 시험이며, 하나의 시험 기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13)

토론시 유의 사항

1. 우리가 절망, 낙담, 좌절감과 실의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복음의 힘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느낌에 대하여 말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만한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미리 가장과 이야기하면 이 토론이 더 절될까? 이 주제에 관하여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배움의

추구-평생의 과업



방문교사메시지

목적:
우리가 일생을 통해
배움을 계속해 나가야
할 책임을 이해함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 이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단체는 기쁨을 누릴 것이며, 지식과 지혜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교회 정사 4:607) 이 말씀은 상호부조회가 조직된 직후 그 모임에 모인 자매들에게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한 말씀이다. 우리의 책임은 예언자가 약속한 “지식과 지혜”를 받는 것이 모든 합당한 자매들의 권리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갈망을 지닌 채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속성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를 지식으로 축복해 주시고자 하신다. “어느 사람이 연약한 팔을 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 강의 흐름을 막아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으랴. 만일 그같이 할 수 있을진대 전능하신 이께서 말일성도의 머리 위에 하늘에서 지식을 쏟아 부으심을 막을 수

그린트 히븐 사진

있으리라.”(교성 121 : 33)

말일성도 여성들에게 주께서 주신 축복에 대하여, 대관장단의 고든 비헝클리 부대관장은 여성은 그들이 “살게 될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정신과 기술을 연마하고 재능을 쌓게 해주는” 기회를 받았다고 말씀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셨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닐 수 있습니다.(교성 84 : 46 참조)”

(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99페이지)
헝클리 부대관장은 우리에게 결혼 생활과 가족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한 다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신다.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지식을 늘리고 우리의 이해와 깨달음을 더욱 넓힐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학문의 집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주위를 경전과 좋은 책과 고상한 음악과 건전한 활동으로 꾸밀 수 있다.(교성 88 : 118-19) 우리는 여러 가지 부름으로 모임마다 다 참석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일학교와 상호부조회 공과를 매주 공부할 수 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교회 자매가 무지하거나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너희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아 기쁨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가져다 주는 비밀과 평화로운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 (교성 42 : 61)

자신이 받은 기술을 갖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재능을 사용한다면 이 생과 영원한 생활에서 더 훌륭한 어머니와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모든 자매들이 경전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여러분이 독신자이거나 기혼자이거나 젊거나 늙거나, 미망인이거나 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나, 우리 가정이 여성 경전 연구가로 축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150-51페이지)

우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정식 교육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과학이나 의학계 및 사업계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가족과 친구와 학생들의 생활에 의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삶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이 “학문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 상호부조회 공과와 다른 자매들과의 어울림은 어떻게 자매들이 학문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는가를 토론한다.

복음은 우리를 함께 묶어 주는 공통의 끈입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과의 대담



바바라 더블류 윈더 상호부조회 회장단 사무실에 함께
모인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앉은 사람) 윈더 자매;
(서 있는 사람 좌로부터) 조이 에프 이반스, 제일 보좌;
조안 비 독시, 제이 보좌; 조안 스펜서, 재정 서기

바바라 더블류 윈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과 그녀의 보좌들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분명히 전 세계의 교회에 있는 자매들을 향하고 있다. 윈더 자매, 조이 에프 이반스 자매, 존 비 독시 자매는 본부 회장단으로 봉사한 지 거의 삼 년이나 되는 기간에 수많은 나라의 자매들을 만났다. 상호부조회가 어떻게 교회 자매들을 국제적인 자매애로 단합시키는가에 관하여 그들의 견해를 함께 들어 보도록 한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말일성도 자매들이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윈더 자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며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문제가 우리 여성에게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인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반스 자매: 여성들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은 그들의 문화가 서로 상당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은 재미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윈더 자매: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같기 때문입니다.

독시 자매: 자매 성도들 사이의 공통 분모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이유로 교회에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함께 묶어 주는 공통의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이 바로 복음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여성들이 복음의 표준을 지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윈더 자매: 금년에 우리의 공과 과정에서는 영적인 생활 공과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런 공과는 우리 자매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보게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에 대항할 힘을 길러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원리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극복해 내는데 필요한 힘을 길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반스 자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말한다고 해도 자매들이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비록 문화는 서로 다를지라도 복음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이 교회 회원이 아닌 자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반스 자매 : 그것은 남편의 태도—부인이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자녀가 침례받도록 허락하는지 등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는 자매들은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윈더 자매 : 남편이 회원이 아닌 자매가 자기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하여 성전에 갈 수 있다고 발표할 때 나는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온 세상의 말일성도 여성들 사이에서 어떤 영을 발견하게 됩니까?

윈더 자매 : 그들에게는 복음이 가져다 주는 희망의 영이 있습니다. 여성이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의 인생에 무엇인가가 더해집니다.

최근에 상호부조회 조직이 와드와 스테이크 단위에서 모두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온 세상의 자매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윈더 자매 : 이제 상호부조회 조직은 회장과 보좌와 재정 서기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와드 상호부조회 조직은 각 지역 단위 조직의 상황에 맞출 수 있습니다. 매우 작은 단위 조직에서는 회장 혼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질을 갖춘 자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보좌, 재정 서기, 교사, 임원을 늘려 나갈 수 있습니다.

독시 자매 : 우리는 상호 부조회의 제반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응용할 수 있게, 또 융통성있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은 스테이크와 와드 단위의 새로운 임원 구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예를 들어 방문 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해당 자매들의 상황에 맞도록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독시 자매 : 우리는 어떤 와드를 알고 있는데 그곳 회원들은 큰 도시에 널리 퍼져 살며 교통이 굉장히 멀고 차비가 비쌉니다. 그들은 방문 교육을 와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매들이 매주 정규 교회 모임이 끝난 후에 함께 모입니다. 자매들은 각자 자기 지역 내에서 자신이 계속해서 돌보아야 할 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은 병을 앓는 자매의 상태가 어떤지 또 어떤 자매의 아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고합니다. 그들은 연락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한 달에 단 한번이 아니라 매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창의적인 해결책입니다.

윈더 자매 : 이 세상의 여러 지역에 있는 자매들은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계속해서 접촉하여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창의적인 방식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키웁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기를 배우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반스 자매 : 또 다른 장벽도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매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가족만이 서로 집을 방문합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할 때 자매들은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의 가정에 갑니다.

통신상의 장벽은 어떻습니까?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모두 다 전화를 이용하여 자매들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독시 자매 :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전화가 없는 어떤 상호부조회 회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늘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매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인도받았다고 느끼는 곳으로 갑니다. 그 자매님은 그녀가 방문한 사람들이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반스 자매 : 아일랜드에서 오신 어떤 상호부조회 회장님은 전화도 없고 차도 없는데 담당 자매를 방문할 때에는 두 자녀를 자전거에 태우고 갑니다.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자신이 담당할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게 할 수 있습니까?

이반스 자매 : 우리는 가능한 곳에서는 신권 지도자의 승인을 얻어서 주중에 활동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의 자매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주제에 관한 공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생, 영양, 응급 처치 및 문화적인 주제에 관한 공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요일에 공과를 듣지 못한 어머니들을 위하여 가사 공과를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전 세계의 자매들과 계속해서 접촉합니까? 그들의 필요 사항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윈더 자매 : 지역 회장의 부인들이 본부 상호부조회, 초등협회, 청녀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테이크 대회에 남편과 함께 여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신권 대회가 열리는 시간에 스테이크의 자매 지도자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그들은 상호부조회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지도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맞도록 계획하고 프로그램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연차 대회 때 교회 본부에 와서 그들이 세계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전 세계의 자매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까?

원더 자매 : 내가 자매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혼자 살든지, 부모와 함께 살든지, 남편과 함께 살든지 주부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매가 어떤 문화권에서 살든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소유할 수 있도록 모든 자매들이 강화되어야 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여성은 자신의 가정을 자신과 가족의 피난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



상호부조회의 사명

상호부조회의 사명은 여성들이 다음과 같이 하도록 돕는 것이다.

1.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쌓는다.

여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복된 복음대로 생활하고 함께 나누도록 권고하며 공과를 가르친다.

2. 교회의 가족을 강화한다.

자매들은 가족의 영원한 본질에 대하여 배운다. 그들은 성전 사업과 계보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개인과 가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가사 및 영양에 관한 기술을 훈련시킨다. 사랑에 넘친 자매에 속에서 성취하고 배우고 봉사하기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

3. 자선 봉사를 행한다.

궁핍한 사람에게 자선 봉사를 행함으로써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개인과 가족에게 하나의 지원 방식을 제공한다. 이런 희생적인 봉사의 결과로써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다.

4. 신권을 지지한다.

자매들은 신권의 목적과 축복을 이해하고 개인 문제와 상호부조회 문제에 있어서 신권 지도자의 인도를 구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상호부조회 팸플렛 PXRS4567에서 발췌]

범세계적인

교회 잡지(성도의 빛)

이십 주년

더 블류 더블류 펠프스 형제는 작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1832년에 처음으로

말일성도 정기 간행물을 설립했을 때 그는 이 잡지가 대양과 온갖 문화권과 언어권에 퍼지는 모습을 그려 보았다. 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Evening and Morning Star)는 “영원한 복음의 사자”가 될 뿐 아니라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사이에서 진리를 퍼뜨릴 것”이다. (교회 정사, 1:259)

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는 그 원대한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사실상 창간호가 나온 지 불과 십사 개월 만에 이 잡지의 마지막 호가 출판되었다. 이 잡지를 찍어 낸 인쇄기를 폭도들이 파괴해 버렸으며 곧 성도들은 미주리주의 잭슨군으로 이동해야 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디로 가든지—커틀랜드로 가든지, 나부로 가든지, 솔트레이크의 계곡으로 가든지, 늘 전세계로 진리를 퍼뜨릴 잡지에 대한 펠프스 형제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 말일성도 메신저 앤드 에드보케이트(Latter-day Saints' Messenger and Advocate) (커틀랜드,

1833-37), 엘더즈 저널(Elder's Journal)(커틀랜드, 1837-38), 타임즈 앤드 시즌스(Times and Seasons)(나부, 1839-45)가 나와 있었다. 선교사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전파할 때 흔히 복음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 잡지를 만들어 내곤 했다. 1840년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잉글랜드의 리버풀에서 말일성도 밀레니얼 스타(Latter-day Saints' Millennial Star)를 출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846년까지만 해도,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언어로 전하기 위하여 잡지를 사용한다는 목표는 성취되지 않았다. 1846년에 덴 존즈 장로가 웨일즈에서 *Prophwyd Y Jubili, neu, Seren Y Saints* (“기쁨의 예언자, 혹은 성도의 별”)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최초로 영어를 쓰지 않는 잡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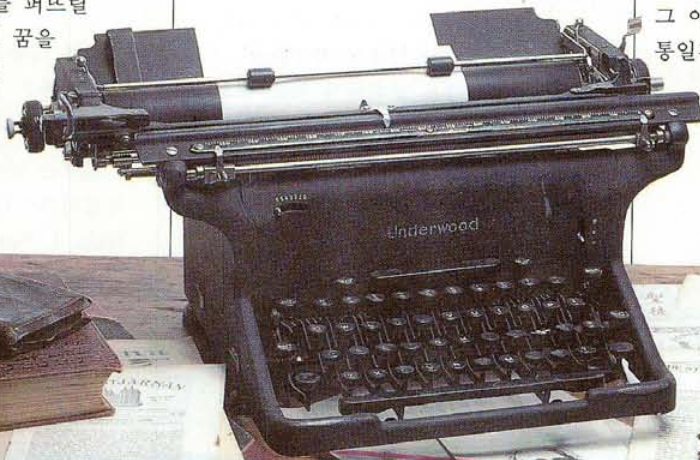
그 후 오 년밖에

안되었을 때 에라스터스 스노우 장로가 덴마크어로 *Skandinaviens Stjerne* (“스칸디나비아의 별”)을 창간했다. 같은 해에 존 테일러 장로가 불어로 *l'Etoile* (“별”)을 또 독일어로 *Zion's Panier* (“시온의 깃발”)을 창간했다.

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 잡지 출간은 교회의 선교부를 통해 조금씩 계속되었다. 이런 잡지를 출판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복된다는 사실에 주목한 사람은 바로 1966년에 유럽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었던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였다. 그리고 이러한 잡지의 질과 내용은 큰 차이가 있었다.

헌터 장로는 가능한 곳에서는 잡지 출판에 드는 노력을 통합하고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총관리 역원들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리고는 이십 년 전 이달 즉 1967년 3월에 통일된 교회 잡지(성도의 빛)가 아홉 개의 언어로 출판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여러 해 동안에 다른 언어로 통일된 교회 잡지가 계속 더 나왔다.

오늘날 교회 잡지는 18개국 언어로 인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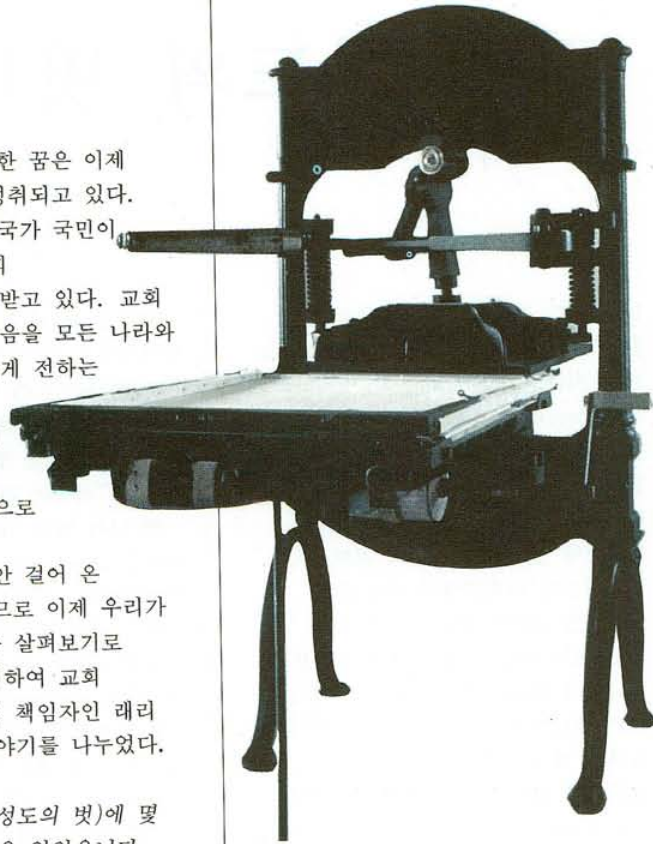
펠프스 형제의 원대한 꿈은 이제 와서 더욱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다. 매달 사십 개 이상의 국가 국민이 자기 나라 언어로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 교회 잡지(성도의 빛)가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첫번째 교회 잡지의 임무를 떠맡은 가운데 전세계에서 사람들의 생활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 동안 걸어 온 발자취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교회 잡지(성도의 빛) 편집 책임자인 래리 에이 힐러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교회 잡지(성도의 빛)에 몇 가지 변화가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성도의 빛은 천연색으로 되어 있으며 매달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독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모든 언어권으로부터 더 많은 원고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몇몇 작가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며 유능한 사진사와 화가도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 국제적입니다. 독일 성도나 페루 성도나 사모아 성도들이 보낸 훌륭한 기사는 영어로 출판하는 잡지를 포함하여 온 세상의 교회 잡지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힘은 어디에 살든지 이 교회 회원들의 개인적인 간증과 의로운 생활로부터 나옵니다. 교회 잡지(성도의 빛)는 복음이 퍼져 있는 모든 나라와 문화권에서 자유롭게 의로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잡지(성도의 빛)가 진실로 국제적인 잡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평회원도 잡지 기사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잡지에 나와 있는 많은 기사는 어머니, 아버지, 가정 복음

교사, 초등학교 교사 등 신앙을 복돋아 주는 경험을 했거나 복음 생활을 하는 중에 영감을 받은 평회원이 쓴 것입니다.

교회 잡지(성도의 빛)에서는 어떤 종류의 기사를 원합니까?

1. 신앙을 복돋아 주는 경험에 관한 짧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는 개종 이야기와 선교사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연령의 모범적인 말일성도에 관한 기사. 자기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교회 회원, 소속 지역 사회에 특별한 공헌을 한 회원, 특별히 훌륭한 선교사, 교회가 자기 지역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있어서 특히 큰 힘이 된 교회 회원 등이 훌륭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람이 복음 원리를 자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기사. 자녀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것에 관하여 또 선교 사업을 행하는 방식에 관한 기사.
4. 해당 지역의 교회 역사에 관하여 훌륭하게 탐구한 기사.

원고를 어떻게 교회 잡지에 보낼 수 있습니까? 원고를 낸 다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원고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TAMBULI, Country Space Bldg. 1, Sen. Gil J. Puyat Ave. Ext.,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P.O. Box 2339 MCCPO.**

다른 잡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내 주신 원고 중에서 발췌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편집자가 어떤 원고를



선택하면 교회 협의 검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교회 잡지 편집자는 보내 주신 원고를 출판하기 적합하도록 편집하고 줄이거나 손질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제출한 후 몇 개월도 안되어 자기 원고가 출판되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잡지(성도의 빛)를 끝까지 다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은 죄의식을 느껴 마땅한가요?

이 잡지는 모든 연령의 사람, 교회 지도자 및 평회원, 교육적 및 직업적인 면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 독신자 및 기혼자, 가족이 모두 말일성도인 사람 및 혼자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 등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관심과 필요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기사가 모든 독자에게 똑같은 흥미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 잡지는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는 연회와 같습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음식을 다 먹음으로써 필요한 영양을 가장 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광범위하게 온갖 종류의 기사를 최소한 시식이라도 해봄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필요 사항을 훌륭하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잡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모든 독자가 모든 기사를 다 읽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여러분이 읽으시는 기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증진시켜 주고 여러분이 좀더 복음대로 생활하게 해줄 통찰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잡지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

교회 잡지의 머나먼 고귀한 역사

1846년 7월—*Prophhwyd y Jubili, neu, Seren y Saint*(“기쁨의 예언자 또는 성도의 별”)—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첫 교회 잡지—가 웨일즈의 머티어—티드필에서 출판되기 시작했다. 덴 존스가 출판하고 편집한 이 잡지에는 교리 및 역사에 관한 기사와 교회 지도자의 메시지와 교회의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응답이 담겨 있었다.

1851년—에라스투스 스노우 장로가 덴마크어로 *Skandinavians Stjerne* (“스칸디나비아의 별”)의 출판을 시작했다. 존 테일러 장로가 불어로 *l'Etoile*(“별”)을 또 독일어로 *Zion's Panier*(“시온의 깃발”)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1862~1966—이 기간에 교회의 여러 선교부에서 이 이외에 여러 가지 잡지를 출판했다. 이런 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 Der Stern*(“별”) 독일어 1862년
- Nordstjarnen*(“북극성”) 스웨덴어 1877년
- de Ster*(“별”) 화란어 1896년
- Lys over Norge*(“놀웨이 상공의 빛”) 놀웨이어 1922년
- Shentao che Sheng*(“성도의 음성”) 중국어 1959년
- Valkeus*(“빛”) 핀란드어 1950년
- Liahona*(“리아호나”) 서반어 1937년
- A Liahona*(“리아호나”) 폴투갈어 1948년
- 성도의 빛 한글 1965년

1966년에 유럽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었던 십이사도 정원회의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는 수많은 다른 잡지를 출판하는 데 있어서 품질이 다양하고 노력이 중복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이 잡지를 어떤 중심 지역에서 생산할 것을 제안했다.

1967년 3월에 통일된 교회 잡지 초판이 아홉 개 언어로 나왔다.

1987년 3월—통일된 교회 잡지는 이십 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나오고 있다.

- 중국어 : *Shentao che Sheng*(“성도의 음성”)
- 덴마크어 : *Stjerne*(“별”)
- 화란어 : *de Ster*(“별”)
- 핀란드어 : *Valkeus*(“빛”)
- 불어 : *l'Etoile*(“별”)
- 독일어 : *Der Stern*(“별”)
- 이태리어 : *la Stella*(“별”)
- 일본어 : *Seito No Michi*(“성도의 길”)
- 한글 : *Songdo Wi Bot*(성도의 빛)
- 놀웨이어 : *Lys over Norge*(“놀웨이 상공의 빛”)
- 필리핀(영어) : *Tambuli*(마을 집합을 신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나팔의 타갈로그 이름)
- 폴투갈어 : *A Liahona*(“리아호나”)
- 사모아어 : *O le Liahona*(“리아호나”)
- 서반어 : *Liahona*(“리아호나”)
- 스웨덴어 : *Nordstjarnen*(“북극성”)
- 타히티어 : *Te Tiarama*(“별”)
- 태국어 : *Rom Zion*(“시온의 그림자”)
- 통가어 : *Tuhulu*(“햇빛”)

칠

년 전에, 마리 홀리와 마가렛 애담슨은 북 다고타에 있는 우리 와드에 이사해 왔다. 두 사람은 간호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북 다고타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 프로그램을 맡아 일하게 되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으며,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그 일에 착수했다. 우리는 것처럼 유능한 사람들이 우리 와드에 오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런데, 우리 마을로 이사온 지 육 개월쯤 되었을 때, 마리는 희귀한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몇 개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마리의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알지 못했다. 거의 삼 년 동안이나 마리는 그녀의 의지로 그리고 의사들이 내릴 수 있는 모든 의료 처방을 다하여 자신의 질병과 싸웠다. 드디어 그녀는 병세가 아주 약화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마리가 너무 약해져서 집에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점심을 해주고, 목욕을 시켜 주고, 집안 살림을 해줄 사람을 고용했다. 나는 마리의 방문 교사였으며, 나의 동반자와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면에서 그녀를 도와 주었다. 그녀의 친구 마가렛은 직장을 마치고 나면 매일 들려서 밤에 간호를 해주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음

여름이 지나가자, 마리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의사들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자, 마리는 요양 프로그램에 들게 되었다. 요양 프로그램이란 집에서 임종하기를 원하는 말기의 중병 환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간호를 베풀어 주는 단체에서 나온 자원 봉사자들의 조직을 말한다. 요양 프로그램 자원 봉사자들이 간호를 맡았으므로, 우리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마리의 집에서 친구가 되어 주었다.

처음에는 요양 자원 봉사자들은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마리를 도와 주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그들은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에서의 친구들은 믿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상호부조회 자매들 역시 요양 단체에서 나온 여자들과 일하기가 불편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단 종교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자원 봉사자들이 우리와 우리 종교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다. 우리 상호부조회에서는 임종을 앞 둔 자매를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이 없었던 것이다. 많은 자매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다. 우리는 모임을 갖고 자매들에게 비상시에 해야 할 일과 진통제 주사를 놓는 법을 가르쳤다.

우리는 일정을 짜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가 오기 전이나 후에 자원 봉사자들이 누가 교대해 올 것인지 알지 못했으나, 마리는 그 때마다 빼놓지 않고 우리를 소개해 주고는 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요양 자원 봉사자들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이내 친구가 되었다. 요양소 여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생활하는가에 놀랐다. 많은 자매들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주부들이었으나, 우리는 모두 마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온 것이다. 자원 봉사자들은 우리를 존경하게 되었다.

여러 달 뒤에, 마리는 갑자기 증세가 나빠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역시 의사인 우리 와드의 감독은 마리의 가족에게 알렸다.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요양 자원 봉사자들은 마리의 침대가로 모여 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 마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했다. 우리가 그녀를 떠나 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 슬픈 시간이었다.

그러나 마리는 죽지 않았다. 이틀 뒤에 그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소의 몇몇 봉사자들은 화를 내며 실망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가진 모임에서 그들은 “왜 하나님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마리의 훌륭한 마음과 생명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처럼 침착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왜 우리는 이곳에 있는가 하는 이유와 우리의 생의 목적과,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약속에 대한 것을 말하자 요양 봉사자들은 조용하게 앉아서 듣고 있었다. 우리는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모임은 사색에 잠긴 영적인 분위기에서 끝이 났다.

“이제는 작별 시간”

여러 달 뒤,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핌을 계속한 열 네 달 뒤에, 마리는 마침내 죽었다. 그녀의 장례식은 슬프지만은 않았다. 마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장례식은 우리가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침착하고 평안한 “이제는 작별 시간”이 된 것이다. 장례식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일성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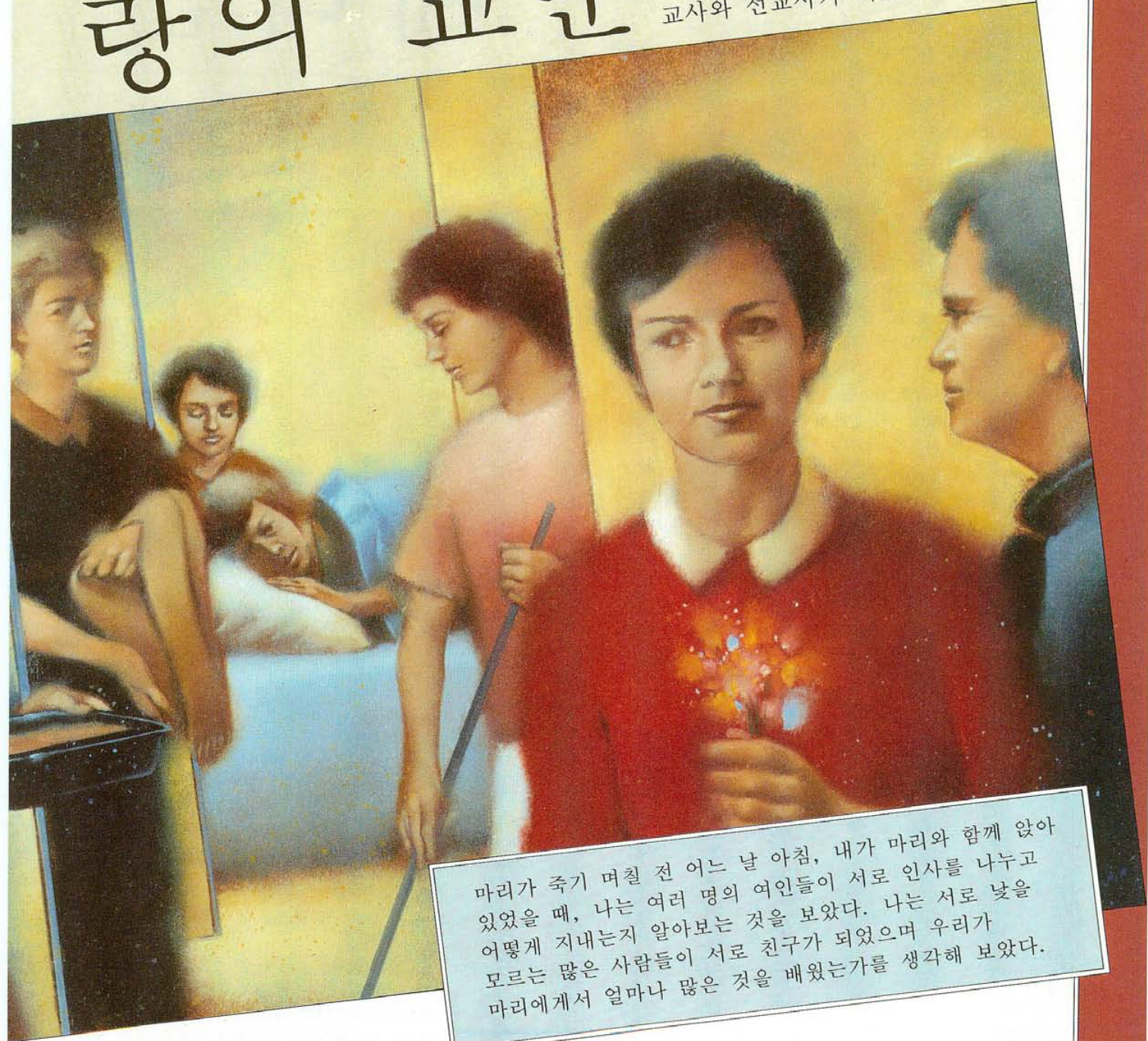
사



카렌 앤더슨 그림

랑의 교훈

암으로 죽어가는 마리는 그녀를
돌보아 주는 사람들에게
교사와 선교사가 되었다.



마리가 죽기 며칠 전 어느 날 아침, 내가 마리와 함께 앉아
있었을 때, 나는 여러 명의 여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서로 낯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되었으며 우리가
마리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매리온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요양 자원 봉사자들이었다. 또한 대학에서도 많이 참석했다. 마리가 요청했던 대로 복음의 원리가 설명될 때 청중들은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 나는 여러 가지 흥미있는 말을 들었다.

“내가 참석해 본 것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이었어요. 너무나 잘 조직되었으며, 여러분이 모두가 자원한 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새겨야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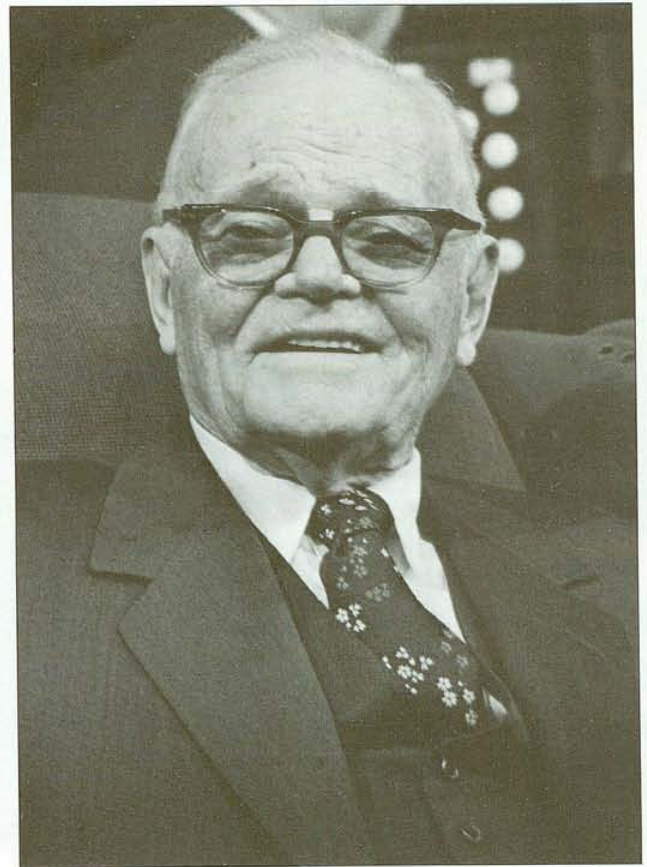
“나도 여러분과 같이 진심으로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것처럼 평안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마을에서 살았지만,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올 용기가 없었어요. 오늘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마리가 나에게 준 책을 읽어 보았으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이곳에 있는지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마리가 그녀를 돌보아 준 비회원들에게 물문경과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의 기이한 업적을 한 권씩 주고 두 권을 다 읽어 보라고 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죽고 나면 누군가 와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질문에 답해 줄 것입니다.” 하고 그녀의 친구들에게 말했다.

마리가 병을 앓는 동안, 마흔 다섯 명의 상호부조회 회원들과 스물 두 명의 요양 자원 봉사자들과 여덟 명의 시간제 고용인을 포함한 일흔 다섯 명의 사람들이 도와 주었다. 마리를 돌보아 주면서 서로 낯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었다. 이제 그러한 씨앗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일은 그녀의 친구인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주께서 추수를 거두실 수 있게 해야 한다.□



교회의 평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의 영적인 헌신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젖어 있는 그의 모습이 엿보인다.

젊은 선교사는 아침 시간을 선교 본부의 마루를 닦고, 셔츠를 빨아 다리거나 양말을 깎는 일에 보냈다. 그 날은 준비일이었으므로, 그는 대학의 도서관을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다. 서가에 특별히 관심을 끄는 책이 펼쳐 있지 않음을 발견한 그는 자기의 교리와 성약을 꺼내어 하늘에 관한 요셉 스미스의 시현인 76편을 읽기 시작했다.

예언자의 표현에 심취되어 시간가는 줄도 모른 그는 밤이

지 롬니 부대관장

“이분이 무릎 꿇은 곳은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마빈 케이 가드너

되어서야 도서관을 떠났다. 전차를 타러 잔디밭을 지나 오며 그는 하늘을 쳐다 보았다. “달은 없었으나 하늘은 맑았습니다.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남십자성과 다른 별들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경이감을 갖고 하늘을 응시했는데 그 별들 너머 저 멀리에 내가 읽었던 것들을 보는 듯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 잔디밭을 지나왔는지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1965년에 이 경험을 회상하며 롬니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사십삼 년 전 호주의 시드니에서 보낸 그 토요일 저녁 이후부터 나는 육신의 출생과 사망 사이의 좁은 간격만을 보여주는 렌즈를 통하여 인생을 보는 것으로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나는 계시된 진리를 알게 된 나의 지식을 근거로 하여 시험해 보지 않고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을 내린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 1965년 5월 27일, 20페이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와같이 삶의 모습을 형성케 한 경험은 근래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받은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의 통찰력과 안목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다. 계시된 진리에 대한 그의 큰 사랑은 봉사로 일관된 그의 생애에서 그가 전한 수많은 설교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의 능력은 그의 성역의 증명서가 되었다.

롬니 부대관장의 건강이 최근에 악화되어 교회 행정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없으므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가 정원회 회장 대리로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롬니 부대관장은 그의 영감을 통하여 왕국의 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많은 말일성도들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지도자요 친구가 되고 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대관장단 보좌로서 봉사한 그의 재능을 깊이 인식하고 의지했다. “롬니 부대관장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하여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경전의 배경을 언제나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정확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경전에 연관시켜 줍니다.” (지역 대표 세미나, 1979년 10월 5일)

멕시코에서 출생

매리온 지 롬니의 영적인 교육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1897년 9월 19일, 멕시코의 콜로니아 후아레스에서 출생한 지 여드레 후에 그의 부친인 조지 에스 롬니는 미국 북부 지역에서 이 년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하여 떠났다. 매리온의 어머니인 아티미지어 레드 롬니는 세탁과 뜨개질을 하여 자신과 아기를 부양하며 선교사로 봉사하는 남편에게 돈을 보내 주어야 했다. 그녀의 아들은 봉사와 희생의 축복을 배우게 되었다.

매리온은 부친이 계시지 않은 사이에 살아 남기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앓았다. 그의 어머니의 요청으로 신권 소유자들은 그에게 병자 축복을 해주었다. 그들이 아기가 살아서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리라고 약속하고 난 후에 그는 건강을 곧 되찾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주님의 권능으로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기도하고 표준 경전을 사랑할 것을 가르쳤다. 말일성도 개척지에서는 교제가 부족했으므로 매리온과 다른 아이들은 주로 경전을 가지고 공부했다. 그는 축복사의 축복에서 그가 충실하면 위대한 경전 해설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혁명의 와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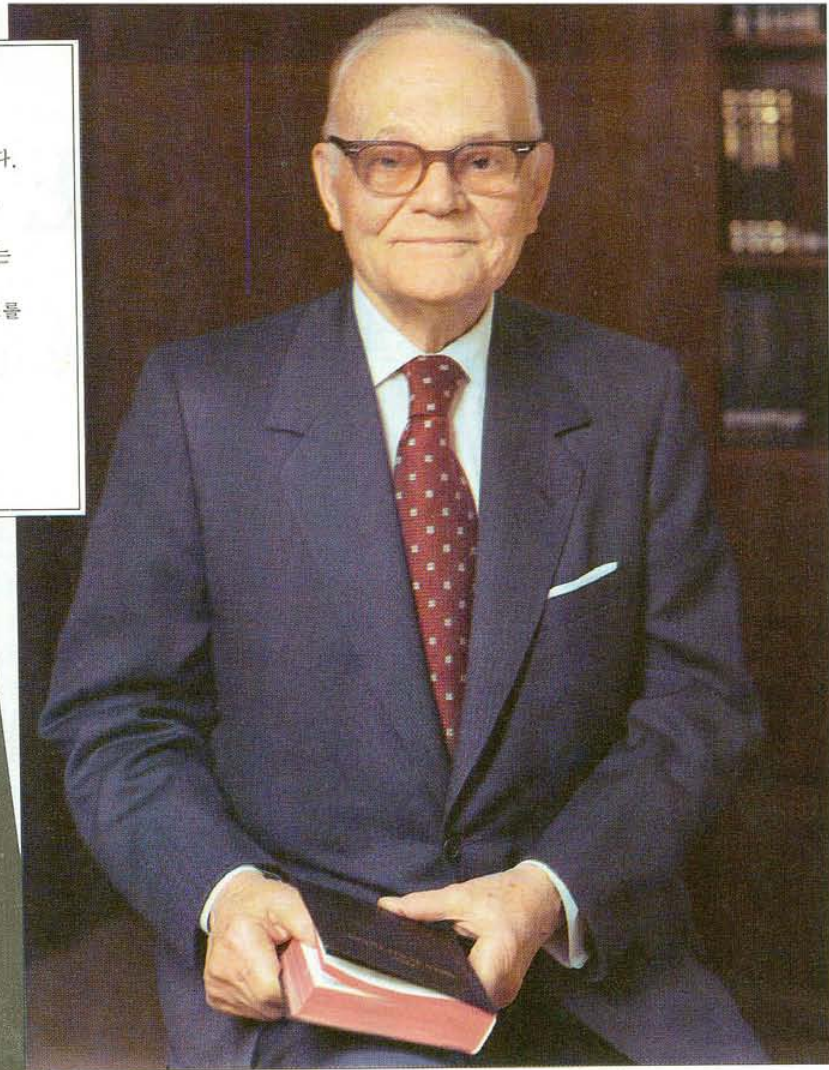
이 어린 소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혼란과 사악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1912년 경에 개척자들은 그들이 혁명의 와중에 휩쓸린 것을 알았다. 어린 매리온은 지역마다 서로 쫓아 다니는 군대를 피해 가며 개척지로부터 보급품을 날라다 주었으며, 그의 집에서 사십 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충격이 시작될 때는 그는 두려움에 질리고는 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그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신앙과 간증의 찬송가를 들을 때는 잠시 잊을 수도 있었다.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나를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는 약 칠십 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나의 뇌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82년 1월호, 2페이지)

그처럼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재난 속에서도 그의

1920년에 선교사로서 호주의 시드니에 도착한 23세 당시의 롬니 장로. 그는 1972~1985년에 대관장단의 일원(우측)이었다.

맞은편 페이지: 11년간 솔트레이크시티 검사로 일한(좌측), 그는 후에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중앙)와 함께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20년 이상 일했다.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서 그는 해롤드 비리 장로와 헨리 디 모일 장로와 더불어 교회 복지 위원회(우측 위)에서 봉사했다. 1953년에 물론 개척자 기념교를 헌납하기 위해 네브라스카주 오마하로 총관리 역원 부처들과 함께 여행한 롬니 장로. (우측 아래)



성도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열 네 살이 된 매리온과 그의 가족은 멕시코 혁명의 위험을 피하고자, 가족 전체의 소유물을 트렁크 한 개에 쏙어 넣고 나오는 그들을 두 명의 반란군들이 가로막고, 그들의 돈을 모두 빼앗고, 총을 겨누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을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하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웬일인지 그 멕시코인들은 총을 쏘지 않았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철도역으로 안전하게 나아갔습니다. 이 때에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에 대하여 나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렸으며, 이 경험은 나에게 주님께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인스트라터, 1943년 7월호, 401페이지)

보호받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해가 지나 대관장단의 일원이 된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역경의 때에 성령을 안내자로 삼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러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신을 받고 그의 인도를 따른다면 나는 이 어려운 시대에 보호받아 끝까지 견딜 사람들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이며, 성신의 인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2년 1월호, 6페이지)

현실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준비를 갖추는 것은 자주 롬니 부대관장의 설교의 주제가 되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1930년대에 젊은 감독이 된 그는, 총관리 역원들이 성도들에게 식품과 기타 필수품을 비축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들고는, 곧 집안과 집회소의 지하실에 선반을 만들어 의복과 식품으로 가득 채워 놓았다. 후에, 스테이크 부장이 된 그는, 스테이크와 지역 단위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1941년에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은 그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관리 책임자 보조로 부름받아 18년 동안 그 직책에서 봉사했다. 1959년에서 1963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복지과의 전체 위원장으로 일했다. 후에, 대관장의 일원이 된 그는 연차 대회의 복지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하며 계속해서 그 사업을 지시해 나갔다.

토마스 에스 문슨 장로는 젊은 감독 시절의 그가 교회 복지의 원리를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매리온 지 롬니에 대하여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롬니 형제는 우리 스테이크와 지역을 자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는 지침서에서 복지의 원리를 가르치고 나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느 형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롬니 형제님, 그 지침서에 있는 모든 것을 다알고 계시는 듯 한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아, 롬니 형제님은 눈을 깜박이시고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책을 썼습니다.’”(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147페이지)

주님의 방법

롬니 부대관장의 수준 높은 봉사의 특성은 그가 어린 시절에 배운 원리가 자연스럽게 확대된 것이었다. 그와 함께 여러 해 동안 봉사해 온 해롤드 비 리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꾸밈없는, 개인주의적인 성품은 불행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동정적으로 이해해 주는 마음으로 인해 다듬어졌습니다. 멕시코 ‘탈출’과 그 이후의 세월을 지내 오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전능자의 보호의 눈길 하에서 매리온 지 롬니라는 인간속에 예리하고 정교하게 길들여진 인간이 자라나게 된 것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인간이 만든 체제가 다만 기독교인의 ‘참된 종교’의 개념을 파괴시킬 뿐인 그 시대의 성도들을 돌보는 주님의 방법을 나타내시기에 사용되기 위함이었습니다.”



1951년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은 당시의 롬니 장로 가족 :
(앞줄)롬니 장로 ;손녀 딸 캐드린 ;롬니 자매. (뒷줄 좌로부터)
리차드 제이 롬니 ; 그의 아내, 조안 ; 조지 제이 롬니.

(상호부조회지, 1951년 12월호, 803 페이지)

매리온 롬니는 희생을 한다는 것과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있었다. 멕시코에서 그는 부친을 도와 가족의 식량을 자급자족해 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는 일 년 동안 학교를 쉬고 목수 일을 배워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 그들이 아이다호로 이주한 다음에는, 매리온은 매년 학기를 남보다 늦게 시작하고 일찍 마쳐 파종을 하거나 추수를 하는 등의 일을 도울 수 있었다. 그의 부친이 유타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 가족이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주해 오자 매리온은 다시 학교를 일 년 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했다. 그는 줄곧 일을 하며 법과 대학을 마쳤다. 그는 그의 부친 조지 에스 롬니와 그의 형 가스켈의 가족의 전체 수입을 합쳐 보야도 한 달에 80불도 되지 않았던 1917년 겨울에도 온전한 십일조를 바쳤다. 따스한 외투도 없이 추위에 떨며 감독에게 8불의 십일조를 바치는 일이 어린 매리온의 일이었다.

봉사할 것을 결심함

가족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선교 사업을 나갈 전망은 희박해졌다. 그러나 매리온은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가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체육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한이 있어도,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결심했다. 그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 자신이 저축한 돈을 다 써 버리고 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족을 채우고 귀환한 뒤에 다시 갔었다.

매리온은 그와 같은 결심으로 교육에도 임했다. 1917년에 그의 가족은 아이다호주의 렉스버그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그의 부친은 렉스 아카데미의 학장이 되어 초급 대학으로 승격시켰다. 축구와 야구 팀의 주장이 된 매리온은 1920년에 졸업했다. 그는 1926년에 B.S. 학위를 받았으며, 1932년에는 유타 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75년에는 브리감 영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족의 빈약한 재산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선교 사업도 행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매리온 지 롬니는 절약과 자립심과 주님을 의지하는 원리를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립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습시다. 사실, 스스로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관용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자립심과 절약과 근면한 분위기에서 자라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해 왔으며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1963년 3월 13일, 브리감 영 대학에서 행한 연설)

금발의 미소짓는 얼굴

아이다 켄슨이 매리온 롬니의 삶에 함께 하게 된 것은 그의 부친이 그녀를 렉스 아카데미의 교수로 채용한 때였다. 그녀가 롬니의 집에 온 첫날 매리온은 감기를 앓아 다른 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한 눈에 알아보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금발과 미소짓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때로부터 내 관심을 끈 다른 여성을 보지 못했습니다.”(처치 뉴스, 1973년 12월 15일, 5페이지) 그들은 그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그 두 사람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6년을 더 기다려 1924년 9월 24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녀는 브리감 영 대학에서 졸업생 대표로 송별사를 낭독했다.

“아내는 나의 일생 동안 나를 지지하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롬니 부대관장이 아내의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다. “내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는 아내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내게도 느끼게 하여, 내가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처치 뉴스, 1972년 7월 15일, 7페이지)

결혼 초에는 돈이 별로 없었으나, 그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자주 솔트레이크 극장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는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극장표 두 장을 함께 살 수 없을 때도 있었으며, 버스비가 없을 때도 많았다.

“우리는 함께 웃기를 잘 했어요.” 롬니 자매가 1975년에 한 말이다. “그는 내 인생의 디저트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뉴 이라, 1975년 6월호, 19페이지)

롬니의 애정은 5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줄곧 계속되었다. 그녀가 1979년에 사망한 지 며칠 안되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내가 죽음으로 나에게서 무엇인가 빠져나갔습니다.” 묘지 헌납식에서 그는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인에게 잘 해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부인과 동행하십시오.” (성도의 빛, 1982년 5월호, 8페이지)



1974년에, 그의 아내 아이다詹 롬니와 함께,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는, 아내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내게도 느끼게 하여 내가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신앙이 그들의 슬픔을 달래어 줌

젊은 부부 시절, 매리온과 아이다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겪어야 했다. 그들의 첫번째 두 아이가 어려서 죽은 것이었다. 그러나 신앙은 그들의 슬픔을 달래 주었다. 매리온이 총관리 역원이 되었을 때 받은 약속의 축복에서 그들에게 확신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대가 나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대가 갖는 신앙으로 인하여 축복받을지이다 그대는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대와 그대 가족을 축복하리니 참으로 그대의 후손들을 낳날이 축복하리라. 저들이 모두 진리를 알고 믿게 되며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그대와 하나가 될 날이 이르리라.” (성도의 빛, 1973년 6월호, 32페이지에서 인용)

그들은 아들 둘을 갖는 축복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윈터스의 리차드 제이와 솔트레이크시티에 사는 조지 제이이며, 그 밑에 여덟 명의 증손자와 아홉 명의 고손자를 두고 있다. 조지의 아내 조안은 시아버지에게 대하여 “항상 나를 딸 같이 대해 주시는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한다.

할아버지의 팔과 무릎으로

아이다는 그들이 함께 즐긴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말해 주었다. 여러 해 동안 롬니 부대관장은 성탄절기가 되면 산타클로스 수염을 달고 선물을 나누어 주시고는 했다. 아이다는 크리스마스가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새해 설날에 다시 오게 하여 더 많은 선물을 주고는 했다. 매년 그들은 “뉘시하기” 놀이를 하곤 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줄을 끌어 올리면 그 끝에 선물이 매달려 나오는 것이었다. 롬니 할아버지는 팔과 무릎으로 줄을 조정했다.

롬니 부처는 경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들과 함께 나누었다. 한번은 롬니 장로가 몰몬경 구절을 어린 아들과 교대로 읽고 있었는데, 그는 아들의 목소리가 잠기는 것을 듣고는 감기에 걸린 것인가보다 하고 생각했다. 한참 후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몰몬경을 읽으면서 울어 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렇고 말고,” 하고 그는 대답했다. “때때로 주님의 영이 몰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나의 영혼에 증거해 주실 때 나는 울게 된단다.”



멕시코에서 태어난 롬니 부대관장은 후에 그곳에서 선교 사업을 관리했으며 1961년에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스테이크를 조직했다. 그는 1977년 지역 대회에서 멕시코 성도들과 함께 있었다.

“오늘 저녁에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하고 아들이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다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는 그 후의 어느 연차 대회에서 말했다. “그러나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읽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으로, 그것은 우리를 주님의 영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책을 읽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연차 대회, 1949년 4월, 41페이지)

여러 해 동안 롬니 형제 자매는 몇 집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아들 조지와 그 가족과 함께 가정의 밤 시간을 가질 때가 많았다. 머느리 조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경전을 함께 읽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앞에서 복음 토론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무엇인가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롬니 부대관장은 스스로 주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했으므로 가족이나 교회에 나누어 줄 많은 것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결혼한 초기에 아내와 나는 우리가 특별한 축복으로 생각할 어떤 것을 몹시 원했습니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를 하며 그것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주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바란 응답은 받지도 않은 채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미리 정해둔 어떤 특별한 것을 받는 일에 신앙과 기도를 집중시키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소망이나 청을 제시할 때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지가 그러한 태도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솔트레이크 신학 연구원에서 행한 말씀, 1974년 10월 18일, 8-9페이지)

매리온 지 롬니는 군 검사 보조, 지방 검사 보조, 시 변호사 보조, 주 의회 의원 등을 역임하며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십 일 년간 법관으로 일했다.

첫번째 보조

그 뒤 1941년 4월 6일에,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조로 부름받은 첫번째 인물이 되었다. 십 년 뒤인 1951년 10월 11일에, 그는 사도로 성임되었다. 1972년 7월 7일에 그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의 대관장단 제이 보좌로 지지받았으며, 1973년 12월 30일에 그는 스펜서 더블류 대관장 밑에서 같은 직책으로 다시 부름받았다. 그는 1982년 12월 2일에 킴볼 대관장의 제일 보좌가 되었으며, 1985년 11월 10일에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되었다.

삼십 사 년 이상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받은 롬니 부대관장은 구세주의 훌륭한 증인이다. “우리는 구세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말했다. “그는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는 이 교회가 머리가 되십니다… 나는 그가 살아 계시며 그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앤 아버 지역 대회에서 행한 연설, 1980년 9월 21일, 7-8페이지)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 우리는 영원한 감사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앤사인, 1982년 11월호, 51페이지)

처음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은 그는 그러한 지명을 받아 행하기에 과연 자신이 그만큼 합당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하여 염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 주께서 나를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행한다면 주님께서서는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리라는 생각으로 항상 임했습니다.” (처치 뉴스, 1972년 7월 15일, 7페이지)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는 대개 5시나 5시

30분이면 일어나서, 산보를 하거나 운동을 하고, 반 시간쯤 일찍 사무실에 도착하여 경전을 읽었으며, 때로는 종이 봉지에 싸인 점심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대개 그는 하루에 열 한 시간씩 일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첫 스테이크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롬니 부대관장은 멕시코, 유럽, 남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 사업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았다. 그에게 특별히 뜻깊었던 한 가지 임무는 1961년에 멕시코로 돌아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스테이크를 조직한 것이었다.

다른 지명은 가정 복음 교육 및 가정의 밤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것이었다. 품위있는 인격을 갖춘 그는 그가 가르친 복음 원리를 그 자신의 생활에 구현시켰다. “나는 감독님께 가정 복음 교육을 하도록 지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것은 정규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사무실에서 매우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있으나, 내가 맡은 가족들을 만나고 나면 이내 피곤이 풀리고 다시 활기를 찾게 됩니다. 내가 한 모든 교회 활동 중에서 가정 복음 교육을 맡은 가족들을 방문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나는 솔직하게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롬니 자매와 나는 월요일마다 가정의 밤을 갖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고 토론하며 가정의 밤 교재를 사용합니다.”(처치 뉴스, 1972년 7월 15일, 7페이지)

충성심과 순종심은 롬니 부대관장의 성품을 나타내는 증명서와 같은 것이다. 해럴드 비 리 장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충성심이란 교회 역원들의 권고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충고는 영감적인 것이며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그의 마음의 간증을 받아들이는 책임을 뜻하는 것입니다.”(상호부초회지, 1951년 12월호, 804페이지)

신선한 유우머 감각

롬니 부대관장에게 있어 힘든 일은 신선하고 자연스런 유우머 감각으로 보충되곤 한다.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지지받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부름은 나의 내부에

상당히 큰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이 조그만 찻잔인 나의 욕신에 이처럼 큰 폭풍우가 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심각한 어조로 말을 잇는다. “나는 지금 내 생애의 그 어느 때 필요했던 것보다도 더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에 어느 연설 도중에 그는 자신이 물려받은 레드가와 롬니가의 혈통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유우머러스하게 표현한 일이 있다. “나는 양가의 혈통을 받은 것으로 주장됩니다. 레드가에서는 나를 롬니 태생이라고 하고, 롬니가에서는 레드 태생이라고 합니다만, 나는 그 두 집안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연차 대회, 1951년 10월)

말년에 들어서는 늙는다는 것에 대하여 농담을 할 때가 자주 있었다.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청중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일단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연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 본성에 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안다면, 여러분 중에서, ‘저 노인이 얼마나 길게 이야기를 끝 것인지 알 수 없네...’ 하고 속으로 생각한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대학에서 행한 연설, 1964년 2월 11일, 2페이지)

노령으로 쇠약해짐에 따라 그의 힘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매리온 지 롬니의 간증은 여전히 힘에 넘쳐 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교회의 평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롬니 부대관장의 영적인 헌신을 인정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깊이 젖어 있는 보기 드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가 기도드릴 때는 주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데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너무나도 진지하고, 그의 음성은 부드러우며, 그의 호소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진실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실성은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어서, 우리는 누구나 롬니 부대관장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좀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분이 무릎 꿇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앤사인, 1972년 22, 26-27페이지)

그것은 젊은 선교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호주의 고요한 그러나 중요한 순간인 그 밤으로부터 육십 여년이 지난 때였다. 매리온 지 롬니의 생애와 봉사는 그 당시의 영원의 시현에 그가 헌신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

섬기고자 하면 사랑할지니

수잔 헤인스워드

지금은 교회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교회 건물의 지하실에 있는 교실은 한 가운데 큰 테이블 하나와 의자가 몇 개 놓여 있기는 해도, 행하니 썰렁해 보였다. 열은 녹색 벽을 천장에 길게 매달린 형광등이 비추고 있었으며, 구석에서는 라디오가 쉬쉬 소리를 내고 있었다. 실내는 춥지는 않았으나, 나는 걱정스럽고 긴장하는 마음에 떨고 있었으므로 아직도 눈 속에서 떨고 있는 듯했다.

상황은 그다지 겁나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한 구석에 있는 그들의 고국에서 쫓겨나 아직 그들이 정착한 새로운 나라의 말을 할 줄 모르는 한 무리의 피난민들을 가르쳐야 했다.

나는 그들이 무섭지는 않았다. 그들은 친절하고 말을 잘 듣는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것이 필요했다. 그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로 시달림을 받았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이 이루어낸 생활 터전에서 전혀 낯선 세계로 쫓겨난 것이었다. 나의 경험의 세계는 그들의 것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아 보였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나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여러 번 경험했다. 나는 그것을, 방문 교사들을 원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불행한 생활로 복음의 치유하는 능력에 눈물을 흘렸던 어느 음울하고 한 많은 여인의 방문을 두드렸을 때 느꼈다. 나는 그것을, 불행한 가정 생활로 인해 그에게서 복음의 기쁨이 감추어진 한 이웃 사람과 함께 한 자리에서도 느꼈다. 나의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오랫동안 병치레로 고통을 받았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

봉사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 방해를 받음으로써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내가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인식하고 나서야 사라져 버렸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 아무런 조건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3)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한다면, 나는 조건없는

사랑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상 생활은 자유의지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면에서 시험받게 하신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시련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스스로 택할 수 있게 허락되어 있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리하이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쳤다.

“때가 차매 인간을 타락에서 구하시고자 메시야가 오시나니, 인간들이 타락에서 구속될 것임에 영원도록 자유로울 것이요, 선과 악을 알며…스스로 행동하며 강요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느니라. 인간은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증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매어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니파이서 2:26-27)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고자 노력하는 중에, 대체로 다른 사람의 생활을 위해 너무나 많은 책임을 우리 스스로 지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모든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느낀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해결책으로 그들을 밀어붙이려 할지도 모를 것이다.

나는 이제서야 나의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내가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그들을 고향에서 쫓아낸 전쟁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그들의 생활을 재건하고 감정적인 상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많은 세월을 보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어쩔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행복을 찾고 위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것같이 보이나,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쉬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자 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나, 후에 깨닫게 된 바이지만—그들을
위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되는 것은 아니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장 훌륭한 봉사이다

내가 처음으로 가장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도와 주시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였다. 때로 주님은 내가 구할 때 나에게
지시를 해주신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사랑의 감각으로
나를 축복해 주실 때가 많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주신다.
나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은 나의 능력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러한 느낌은 나의 생활에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봉사에 대하여 생각해 본 나는, 이러한 종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열거한 목록에서 저 밑에 처져 있는 것이었음을 발견했다. 나는 그들을 조건없이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일하여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녀이다. 그녀는 치참한 문제를 지닌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사랑의 치유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훌륭한 봉사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테레사 수녀는 골병이 들어 살아갈 의지조차 없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묘사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적어도 단지 몇 시간이라도 그들이 살아야 하며, 인간과 신의 사랑을 알아, 세상에는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며, 진실로 그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며, 그들도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말콤 머저리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퀘벳타의 마리아 수녀, 가든 시티, 뉴욕: 이미지 북스, 1977년, 68페이지)

내가 나의 난민 학생들을 도와 주어야 할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들을 불안하게 생각했던 마음은 사라졌다. 나는 그들에게 봉사하는 데서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찾았다. 더 나아가서, 내가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있음이 곧 분명해진 것이다. 학생들이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커졌으며,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않으면 이러한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도 이와 같은 경험을 갖기 시작했다. 방문 교사로서 내가 지명받은 여인은 나와 더불어 교회에 갈 수 있을 만큼 편안하게 대하게 되었다. 가정 생활이 좋지 못했던 나의 이웃은 나와 나의 친구와 함께 하기를 즐겨 그의 가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구세주께서 사랑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은 언제나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다.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압박감과 좌절감을 혼자서 견디어 낼 수 있을 만큼 강하지는 못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힘을 사용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으로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고 더 높은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내 안에 거하라.” 하고 구세주께서는 가르치셨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4-5)

이 구절을 읽을 때, 나는 포도 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가지는 금방 시들고 죽어 버린다. 그것은 생명을 지탱하는 포도 나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므로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는 없을지라도 가지가 실제로 죽어 가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봉사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우리의 영을 채워 주시는 그의 생명을 주는 사랑과 힘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큰 약속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한 복음 15:7-10)

나는 내가 겸손하고 깊은 신앙으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운다면, 나는 참으로 크게 축복받는다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른 사람을 더욱 돌보게 되고, 그들을 섬기기에 내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느낌에서 오는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되고, 주님의 도움이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될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된다. 조금이나마, 나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봉사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에 새로운 기쁨과 열의로 가득하게 하였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 구세주를 더욱 완전하게 의지하게 되자, 나는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업의 일부임을 더욱 확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 자애로우심을 기뻐하며, 나는 이제 그의 모든 자녀들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된다.□



“그것은 쌍방 통행로입니다”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장로
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한 일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종교 단체의 일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를 악한 권세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세상에서 우리 종교가 근절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요한복음 16:2)

물론 건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참된 말일성도는 본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훌륭한 선택받은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선을 위해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은 심한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으며, 공공연히 박해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요셉 스미스의 시대에도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내 어린 시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며, 우리는 미래에도 직접적인 반대가 계속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적의에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대와 조롱과 증오의 음성에 효과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대답을 갖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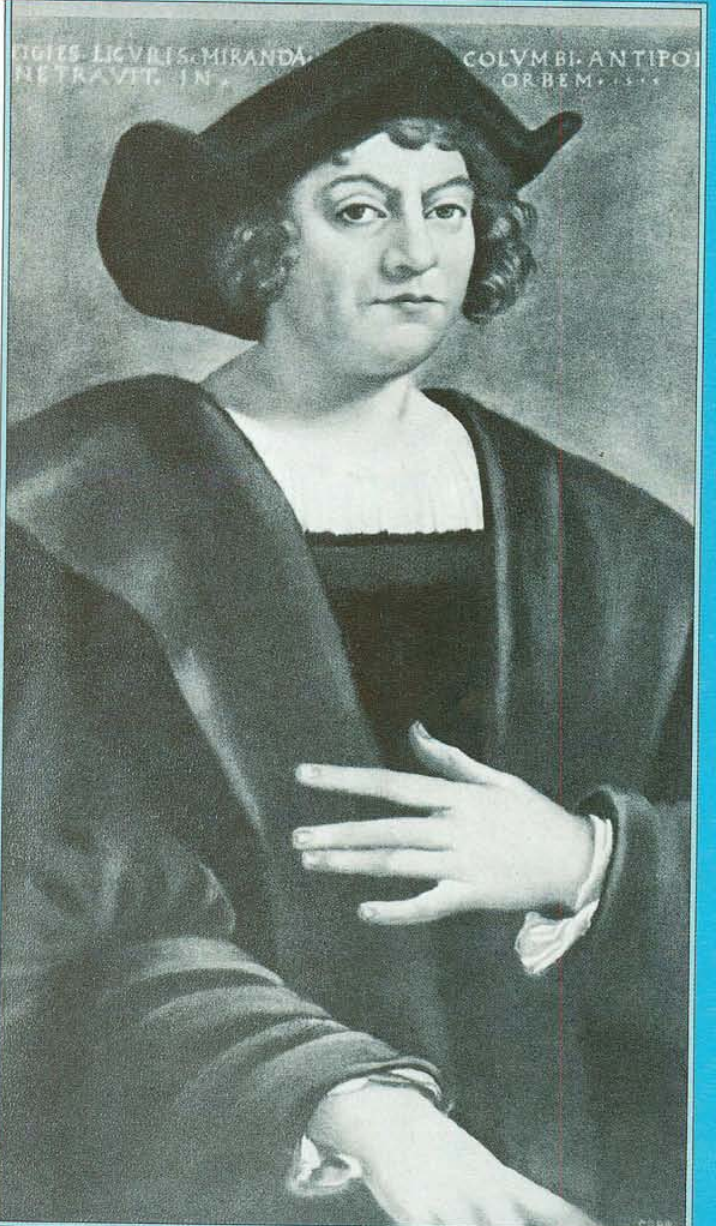
나는 여러분께서 그러한 경우에 딱 맞는 적절한 대답이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더욱 훌륭한 이해를 촉진시켜 결국은 우리가 대표하는 진리에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하고 힘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계획을 이해하고 그리하여 그것을 받아들여 생활하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함

여러 해 전 조단 리버 성전의 개관식에 한 무리의 목사들을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영접한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는 그들을 우리의 손님으로 정중하게 맞은 뒤에 그들이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인도하는 일에 감사를 표한 후,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두세 사람은 우호적이고 따스한 분위기에서 손님으로 처신해야 할 예절도 잊은 채 몇 가지 신랄하고 적대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비난한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힝클리 부대관장에게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과 아들을 보았고, 그들의 교사가 부패하였다는 요셉 스미스의 간증에서 언급된 선언을 증명해 보라는 요구였습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와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본 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다른 교회의 목사들은 모두 다 부패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음이 확실합니다. 그 구절을 주의깊게 읽어 보자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어느 교회가 옳은가에 관해서 분쟁과 논쟁을 일삼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 당시의 일부 특별한 목사들을 언급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요셉 스미스가 아니라)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 2:19)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지금도 다른 교회에 속한 수많은 존경할만 하고 헌신적인 분들이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일하고 그들의 회중을 위해 의롭고도 양심적으로 일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들과 따스하고도 우호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그



콜롬부스는 하나님의 권세의 영향을

받아 그가 예임되고 준비된 신대륙 발견 사업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니파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심에 저 큰 물을 가로질러 약속의 땅에 있는 내 형제들의 자손들에게로 나아가니라.”(니파이일서 13:12)

중에는 교회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드니 리그돈, 존 테일러, 팔리 피 프렛과 그의 몇 명이 영국과 미국에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관용의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여러 우세한 종교의 회원들과 목사들에 의하여 거칠게 취급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에게 타르질을 하고 깃털을 꽂고, 그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그를 투옥시키고, 결국은 그를 살해할 것을 획책하고 순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조롱과 박해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적대주의가 우리의 이해와 행위를 왜곡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의롭고 진실하다면, 물론 그들도 그러하겠지요. 그들은 선을 성취합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윌리엄 윌포드는 교회에 관해서 들어보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코네티컷트 사람들은 장로 교회를 제외한 어느 종교, 어느 교회에도 속하는 것은 사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당시와 같이, 또한 지금 우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갖고 있듯이 어떠한 예언자와 사도와 계시자를 갖는 것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코네티컷트에는 로버트 메이슨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교회에는 예언자와 사도와 꿈과 시현과 계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말일에 한 백성과 한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그 교회에는 세상의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과 같이 예언자와 성도들과 모든 은사와 권세와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노 예언자 메이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언자는 기도를 많이 했으며, 그는 꿈과 시현을 보았고, 주님은 그에게 시현으로 말일에 오게 될 많은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나의 일지에서, 솔트레이크시티 : 청소년 인스트럭터 사무실, 1882년, 1-2페이지)

다른 교회의 목사들이 그들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까? 확실히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존 웨슬리와 찰스

EACH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HIS OWN CONSCIENCE



우리는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러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한다.

(신앙개조 제11조)

웨슬리라든가, 마틴 루터, 존 허스, 존 위클리프, 홀드리히
쾰링글리, 존 칼빈, 기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 영적인
암흑기에 세상에 빛과 진리를 가져다 준 위대한 사람들의
노력과 봉사에 존경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니파이일서 13장에서 콜롬부스가 하나님의 권세의
영향을 받아 그가 예임되고 준비된 신대륙 발견 사업을
이루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 시대 이전에도 이와 같이 훌륭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축복해
주실까요? 그들이 신앙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면
물론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교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인 연고니, 무엇이든지 진리이면 곧
빛이요, 무엇이든지 빛이면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교성 84 : 45-46)

주님은 비회원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까요? 주님께서
그러하심을 수백만의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종교 역사가 갈등과 논쟁의 기록임을 기억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이념의 차이는 정치 이념의
차이 만큼이나 많은 폐단을 가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한다고 자처하는 종교 지지자들이 구세주와 그의 수많은
예언자와 사도들을 죽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순교시켰으며, 국가를 정복하고 멸망시켰으며,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구교와 신교의 정치 파벌간의 삼십
년 전쟁을 끝낸,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 평화 회담에서
독일은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백성의 반도 안되는
사람들만이 살아 남았다고 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와 목사들이 카톨릭 교회의
이단자 탄압을 실시했습니다. 이단자란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의 지도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큰 기쁨과 평화의 좋은 소식이 되어,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펼쳐야 할 종교 이야기가 오히려 중요와 고문과
학대와 전쟁과 대학살의 무서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몰몬경에서 또는 세속적인 역사를 들추어 볼 때,
인류는 종교라는 명목하에 신을 섬기지 않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다지 변화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의 두번째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의 사람들의 태도를 그가 예리하게
관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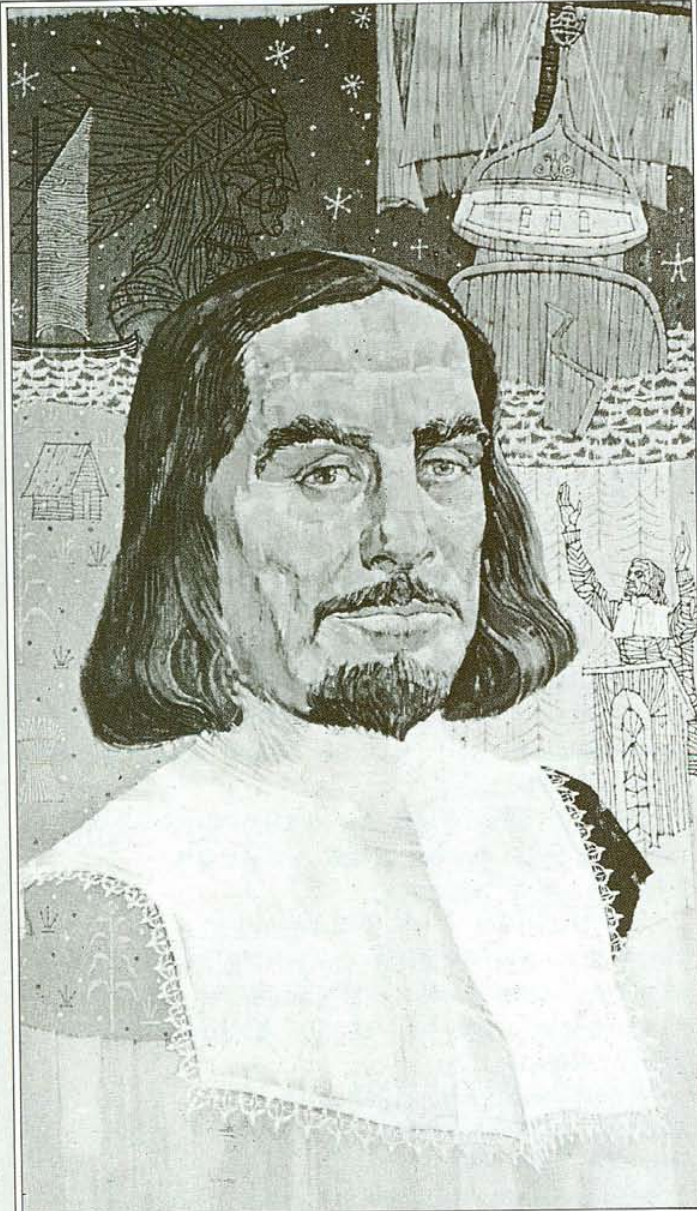
“양쪽 사람들[북부 제주와 남부 제주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에게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각자가
상대방에 적대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양쪽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어느 편도 완전하게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카알 샌드버그에서, 에이브라함 링컨 : 전쟁의
시기-IV, 뉴욕 : 1939년, 92페이지)

우리 사회 질서에서의 행위의 기준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토마스 제이 잭슨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묘사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잭슨의
경건성은 철저했다. 그는 일요일에는 아내에게 편지를
부치지 않지도 않았다. 또는 일요일에 아내에게서 받은
편지조차 뜯어 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안식일에 적지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싸우고, 죽이고, 지옥에라도 보낼 기세로
임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것은 쌍방 통행로입니다”

그러니 증오심과 적대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몰몬을
이상한 종파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이단이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를



영국 태생의 종교 자유의 개척자이자, 로드 아일랜드 미국 식민단의 창시자인 로저 윌리엄스(1603-1683)는 그 당시 지상에 “참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권 권능의 기존 체제를 거부한 그는 권능이 지상에 회복될 날을 고대했다.

역사에서 비극적인 사건과 바로 현대에 무서운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나는 가족과 함께 여러 해 전에 브라질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하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아홉 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우리가 타고 간 배에는 사십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곧 눈에 띄었습니다. 배에는 세 명의 다른 종파의 목사들이 타고 있었는데, 며칠 안되어 세 명의 목사들 중에서 한 사람씩 내게 다가와 물문의 신조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나 유독 우리가 믿는 종교만은 모두 다 알고 싶어했습니다.

나는 다른 신앙을 가진 목사들과 함께 한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기는 했으나, 우리 네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모임은 매우 기분 좋은 것으로 주로 그들이 질문을 하고 내가 답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경전을 뒷받침으로 강력한 논쟁을 벌이게 되면 내 주장을 펼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호적이고 기분좋은 태도로 질문을 했으며, 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다 답을 하시는군요.” 그들은 그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으며, 우리는 토론을 정답게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삼 일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당신이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모두 다 알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하룻가 이를 뒤에 그는 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말한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당신이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단 교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러한 말에 대하여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상한 나는 다른 종교인들은 말일성도들에 대해서

그들과 같은 우정을 나누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거의 화를 내다시피 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은 쌍방 통행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나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는 그가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의 감정을 달래 줄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정을 맺고 우리가 가르치는 원리를 이해하고 더 나가서 인식하고 결국은 받아들여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그들이 행동하듯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비난하고 우리에게 대하여 적대적으로 대한다 해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해를 두고, 많은 선교사들을 접하는 중에, 나는 선교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언어를 익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언어에는 다른 것보다 나쁜 것일 수도 있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브라질에서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우리 선교사들은 그 나라 교회의 사제들, 파드리스를 짧게 불러서 “피디스”(PDs)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회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은 매우 진실되고 깊은 신앙과 전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말은 기독교인 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약 사십 육 년전 내가 남부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일하러 들어간 도시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도시의 중심부에서 전차를 타고 갔으며, 우리 동반자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거주지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브라질 사람들은 모두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번째로 모자를 벗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 됩니다.” 그 말은 전차가 두 곳의 교회를 지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교회를

지나칠 때는 사람들은 존경의 뜻에서 모자를 벗곤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훈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절바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말일성도에게 주는 지침은 이 성구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마태복음 5 : 39, 43-45)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기억해야 할 두번째 사항은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분을 참지 못하면 이성을 잃게 되고 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화를 내기가 쉬우나, 우리는 행동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젊은 선교사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종교를 찬양하지 않는 어떤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쉽게 화를 내게 되는가에 대하여 자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감을 주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우리 장로들은 어느 신교의 목사가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소책자를 발행하여 분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라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우스꽝스런 이야기를 믿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브라질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갖기 시작했으며, 장로들은 그에 대하여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소책자를 가지고 목사를 찾을 수 있으면, 방문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얼마간 준비를 갖춘 후에 그들은 목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러한 책을 발행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는 당황한 듯 회피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독일인 사제였던 마틴 루터(1483

-1546)는 그 당시의 전제적인 종교 관습에 도전함으로써 청교도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 그는 경전에 그의 신학 이론을 구축했는데, 그 신학 이론은 결국 복음 회복의 발판이 되었다.

대표하고 있으며 이 책의 내용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관해 이러한 거짓이 유포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우리가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을 찾게 되면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 주기는 쉬우며, 그렇게 되면 물론, 그들은 당신에 관해서 좋지 못한 견해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러한 책을 계속 발행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계속하십시오. 실상 우리에게 그다지 큰 해는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한번은 좀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은 장로 두 명이 새로운 도시로 선교 사업을 개척하러 나갔습니다. 그 도시는 거의가 카톨릭 주교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이 일을 나가 사람들을 만나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자면,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교님이 당신들이 이곳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모릅니다.”하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교님이 아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볼 일이군요.”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사제가 그들의 숙소를 찾아와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요약해서 이렇게 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네들이 무슨 권능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와 먼저 이 지역의 주교님에게 교리를 밝히지도 않은 채 여러분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지 알고 싶소.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네들이 카톨릭 중앙 교회에서 열리게 될 특별 모임에 나와 주기를 바라오.”

장로들은 선교 본부로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부장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교부장님이 오셔서 도와 주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갈 수 없소. 그러나 그들은 장로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초대장을 보내온 것이요. 바로 그 때문에 장로들이 그곳에 간 것이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보조를 보내 주겠소. 두 가지 조건하에서 그 초대를 받아들이시오. ‘우리를 정중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옹호하겠습니다.'라는"

그 모임에서, 책임을 진 사제가 아무런 격식을 차리지 않고,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들 두 젊은이는 이곳에서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이시게 한 것은 그들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는 그 도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삼백 명 모였습니다.

장로들은 일어나서 배도와 회복과 물몬경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물몬경을 읽고 그에 관해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홀 뒤에 있던 사제는 그 말에 펄쩍 뛰며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 아니, 아니, 안되요. 아무도 그 책을 읽어서는 안됩니다." 모두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임을 가진 후에 일어난 유일한 문제는 제칠 안식교인이 사제 한 사람과 논쟁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장로들은 몇 차례 즐거운 대담을 가졌습니다. 그 후로는 그들은 그 도시에서 전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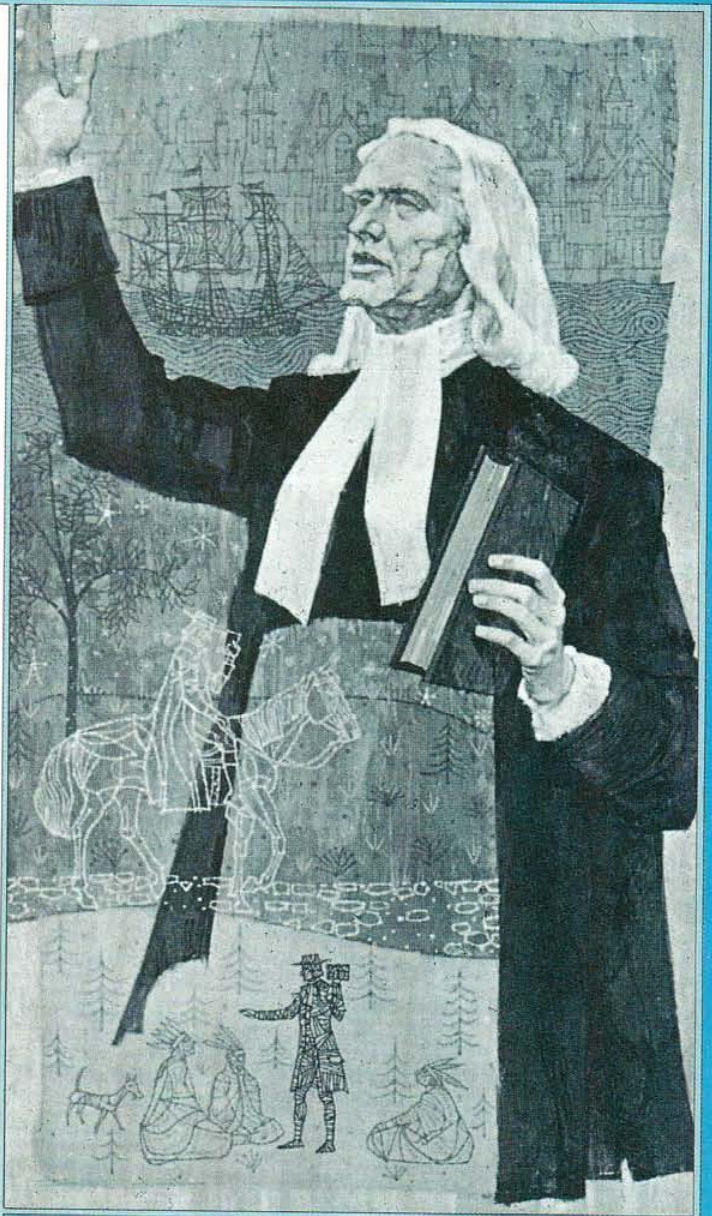
세째로, 우리는 논쟁하지 않아야 합니다. 논쟁하는 것으로는 이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최근에 아리조나의 메사 성전의 성전장에서 해임된 해롤드 라이트 성전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스테이크 부장과 지역 대표로 일했으며, 많은 비회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연차 대회가 있을 때마다 가 보면 템플 스퀘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반대하는 책자를 돌리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트 성전장은 특히 한 사람이 매번 그곳에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대회에서 그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는 그가 로스앤젤스에서 온 목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이트 성전장은 그가 대회에 올 때마다 그에게 말을 걸었으며 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연차 대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니, 없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라이트 성전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들어와 보고 싶습니까?"

그는 "나도 정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사를 모임에 데리고 갔습니다. 라이트 성전장은 이 친구가 그의 생애에서 전에는 한번도 느껴



영국의 목사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1703-1791)는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이 되었으며, 구세주의 가르침의 순수성을 저버렸기 때문에 성신의 은사를 지상에서 찾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가 발전시킨 신학 이론은 미대륙으로 퍼져 나가 더욱 큰 사업의 문호를 열게 되었다.

보지 못한 영향을 받았노라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목사는 교회에 가입하지는 않았습디만, 견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얼마나 훌륭한 방법입니까!

네번째는, 우리는 가르치고 간증할 기회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반대 감정을 표시한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에 대하여 생각은 해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반대를 오히려 기회로 돌리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흔히, 그들은 가족과 함께 두세 번의 우호적인 토론을 가진 후에 어느 날 가장이 문가에 나와 “우리는 더 이상 당신네들과 종교에 관해서 토론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장로들에게 그러한 실망을 주는 말을 듣고 마음 속에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 우리와 더 이상 공부하지 않기로 하셨다니 마음이 안되었읍니다. 여러분과 그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즐거웠읍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셨읍니다.” 그러면 그 가장도 역시 기분 좋게 대해 주겠지요.

그런 다음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었읍니까? 너무 지체하지는 않았읍니다.”

안에 들어가서 장로들은 다른 토론을 강제로 더 하려 들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름을 받았으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믿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요셉 스미스가 침대 가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실 것을 물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시키실 일로 그대의 이름이 모든 백성들에게 좋게도 나쁘게도 알려지리라.’ 요셉은 천사에게 무어라고 했읍니까? (요스 2:33 참조)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읍니다. ‘천사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천사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도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왜 여러분은 그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는지 물으시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시키실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쭙어 보기 전까지는 복음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읍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했읍니다.

다섯째, 우리는 준비를 갖추어야겠읍니다. 나는 여러 해 전에 브리감 영 대학에서 농구 스타였던 허셜 피더슨 형제를 자주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며 경전을 읽고 있는 데, 험상궂은 친구가 문가에서 들여다 보며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 너 고작 그런 책을 읽고 있구나?”

피더슨 형제는 “그런데, 네가 이런 책을 어떻게 알고 있니?”하고 말했읍니다.

그는 “나는 다 알고 있어.”하고 말했읍니다.

“아, 그래?” 하고 피더슨 형제가 물었읍니다. “그럼, 구세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색의 옷을 입고 오시겠니?”

그는 말했읍니다. “그거 뭐 별거 아니구나. 그야 흰색이지.”

피더슨 형제는 말했읍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은 걸.”

“그럼, 무슨 색인데?”

“왜, 내가 찾아보지 그래?”

피더슨 형제는 말해 주려 하지 않았읍니다. 한두 주일 뒤에 그는 토론을 벌일 준비를 갖추고 왔읍니다. 몇 시간이지난 뒤에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말해 줄 수 있겠어?”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미 전에 한 질문을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이성구를 읽고 어떻게 이해하겠읍니까.

“말일에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이사야 2:2)

이제 우리는 누구나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솔트레이크 성전의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면 그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구세주께서 의미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16절)

여러분이 이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겐가 누가 잃어버린 양이고 누가 구세주의 음성을 들었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섯째, 우리는 간증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간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다면, 간증을 하십시오. 질문을 한 사람이 그것을 믿지는 않을지라도, 그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진실하다는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는 우리 종교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신앙을 일관성있게 생활화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나타내는 바를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래 전에, 내가 군복무 중에 있을 때, 내가 가까이 지내던 비몰몬 친구들 중에서 내가 교회의 회원이며, 내가 선교사로 봉사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표준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지켜 주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던 기간 동안 내 친구들이 교회를 좋게 생각하여 그들을 멀리 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나는 복음에 관해서는 그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누군가 그를 찾아내어 그를 가르쳤겠지만, 그는 뱅가터라는 이름의 젊은 친구를 기억했을 것이고, 내가 생활한 방식을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친절과 관용과 존경심으로 대해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제시된 것에 대해서는 굳건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교리와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에 관해서 우호적인 태도로 따스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변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와 교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 계신 예언자와 사도가 있다는 사실에 불쾌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실제로 다시 말씀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증오하기조차 합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선조의 전통이 그들로 하여금 회복은 불쾌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그들의 태도를 조장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해서, 인류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되돌리고 그의 해의 영광의 왕국에서 승영에 이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말일에 그의 영원한 복음을 충만하게 회복시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예수는 실제로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요셉 스미스는 말일에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일성도는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이해에 진실해야 합니다. □

이 연설은 1985년 8월 4일에 브리감 영 대학에서 행한 것이다.

성찬식 말씀 을 위한 처방

크리스 크라우

후 덥지근한 일요일 오후, 예배당 안은 숨이 막혔다. 아내는 애들을 경건하게 앉아 있게 하느라 애들과 씨름하고 있었고, 나는 자꾸만 감기는 눈꺼풀과 씨름하고 있었다. 우리는 둘다 기진 맥진이었다.

연사는 성찬식에서 기를 쓰고 잠자지 않으려고 애쓰는 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연사는 흔히 보는 청소년 연사로, 우리 와드의 청소년 연사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그도 책을 읽듯이 말하고 있었다.

그가 웅얼대며 말을 계속해 나가는 바람에 아내와 나는 맥이 풀렸다. 아내는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버렸고, 나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손에 파묻은 채 줄다가 이내 완전히 잠이 들어 버렸다.

내가 너무 편안한 자세였든가 아니면 누군가 나를 깨우려 흔들었든지, 그랬던 모양이다. 하여튼 내 머리가 내 손에서 빠져 나가 “탁!”하고 앞 이마가 앞에 있는 의자에 부딪치고 말았다.

성찬식에서 그렇게 자주 골머리를 앓는 것은 아니지만, 재미없는 연사와 후덥지근한 예배당은 나를 거의 언제나 즐겁게 한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환경이 불편하다 해도, 연사의 말씀을 듣기가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도 있다. 나에게 잠을 자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연사에게 달린 것이다. 그렇다면, 훌륭한 연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청소년 연사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교회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이 성찬식에서의 말씀으로 실패를 경험하기까지는 나도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재미있게 말씀하는가에 관해서 그다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나는 많은 인용문과 성구를 들어 가며 애국심에 관한 훌륭한 말씀으로 생각한 것을 준비했으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을 잠자게 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야 말았다. 나는

너무나 당황한 끝에 다시는 지루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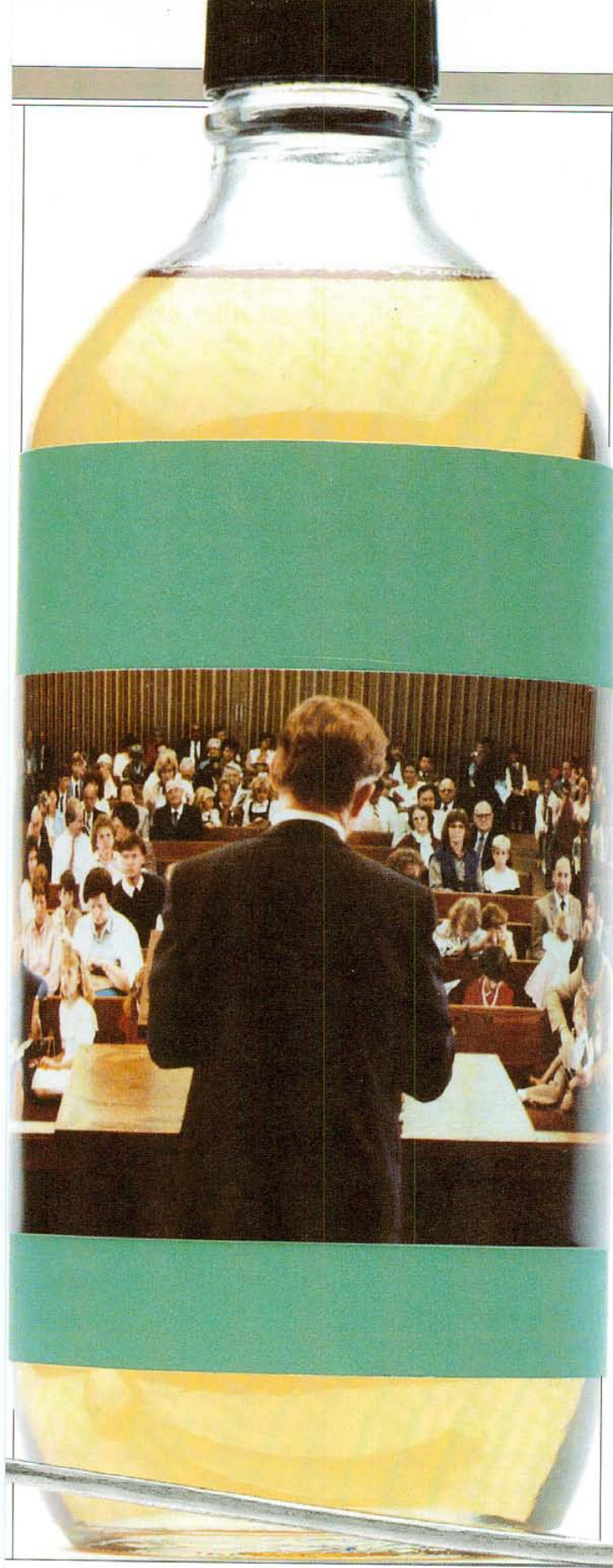
나는 다른 연사들,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주의깊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내가 성찬식에서 봉헌을 당한 지 수주일 후에, 나는 우리 스테이크 부장단이 주관하는 노변의 모임에 참석했다. 각자 영감에 넘친 훌륭한 말씀을 했으며 내가 청중들을 둘러보니 한 사람도 지루한 기색이 없어 보였다.

제이 보좌가 먼저 말씀을 했다. 그는 조그만 시골에서 자란 어린 시절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자기가 그 당시에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당하던 한 아이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십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친구 하나없던 그 소년이 크게 성공하여 그를 찾아와 그의 친절을 감사해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가치에 관한 성구를 인용한 뒤에 복음에 관한 간증을 전하고 말씀을 마쳤다.

그 다음 제일 보좌는 브리감 영 대관장 이후 교회의 모든 대관장을 직접 알았던 그의 증조 할머니에 관한 말씀을 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찾아 보았을 때 할머니는 그와 그의 어린 가족에게 영로하기는 했으나 확고한 음성으로 “믿음을 지키거라!”하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끝까지 참는 것에 관한 성구를 읽고 선을 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중요성에 관한 간증으로 말씀을 마쳤다.

스테이크 부장이 마지막 연사였다. 그는 가족이 사랑을





표시하는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했으며, 자신이 부친의 생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부모님은 선교 사업을 떠나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버스 정거장에 나와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악수를 하고 어머니를 끌어 안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버스에 올라 탔다. 그가 버스에 올라 타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가 다시 작별 인사를 나누라는 영의 속삭임이 들렸다. 우리는 정신이 팔린 채, 그가 버스에서 내려 아버지에게로 가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껴안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부친은 다시는 살아서 그를 보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족간에 서로 사랑을 표시하는 중요성에 관해서 간증을 했다. 우리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모두 깊이 감동되고 영감을 받았다. 모임을 마친 뒤에 나는 노변의 모임의 연사들이 각기 재미있고 고무적인 말씀을 한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모두 복음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구를 사용했으며, 적절한 영감을 주는 일화나 개인적인 경험을 말했으며, 간증을 말했다.

그 다음에 있던 연차 대회에서, 나는 많은 총관리 직원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성구와 일화와 간증의 형식을 그들의 말씀에 도입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다음에 말씀을 지명받으면, 성구-일화-간증을 결합시키는 것이 과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성전 관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과 함께 인봉을 받을 때 겪은 즐거운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의 중요성을 말하고 그 요점을 강조해 주는 성구를 인용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성전과 성전이 주는 영원한 축복에 대하여 간증했다.

회중들은 모임이 끝나고 나서 내가 한 말씀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잠을 자지도 않았다. 사실, 대개는 내 말이 끝나면 아내나 감독님만이 해주던 칭찬을 여러 사람이 해주었다. 나는 내가 한 말씀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느꼈다.

성찬식에서는 누구든지 말씀을 할 수 있고, 조만간에 모든 사람이 말씀 순서를 맡게 된다. 자신의 차례가 곧 (또는 다시) 오게 될 것이고, 말씀을 할 때 유능한 연사들이 사용한 단계를 활용해 본다면 훌륭하게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말씀을 하는 본인이나 청중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우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주제를 선택한다. 다음에는 표준 경전에서 한두 개의 적절한 성구를 찾아본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의 경험(또는 책에서 읽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살펴보고 어울리는 일화를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말씀에서 논한 원리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다음 말씀을 계획할 때 이러한 네 가지 단계를 포함시켜 잘 준비한다면, 성찬식에서 분명히 훌륭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결코 줄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

제넷 토마스

나는 설합장 문을
 쾅 닫고는 몸을
 돌려 칠학년
 과학반에 늦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어떤 과학 과제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혼용지로
 만드는 화산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보다는 셀러리
 줄기와 적색 식용 색소로
 모세관 작용을 나타내는
 과제물을 엄마가 도와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종이 울리자, 나는 교실
 뒷쪽의 지정된 좌석에
 앉았다. 나는 알파벳 순으로
 자리를 정하게 되면 내가
 언제나 교실 뒷쪽으로
 밀려났으므로 그런 배경
 방법에 못마땅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나보다
 뒤쪽에 앉게 되는 몇 안되는
 학생 중의 하나인 줄리
 웨스트 가드에게 마약 무슨
 말인가 할려고 하는데, 과학
 선생님이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엇인가 분명히 화가
 나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과학 수업이 아니라, 미국이
 군사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그 날의 교훈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미사일을 적재한
 함대를 큐바에 보내고
 있었다. 우리 대통령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봉쇄
 작전을 폈다.

“그것은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세상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
 시간 안에 끝장이 날 수
 있어요. 핵 전쟁이 어떤

아직 끝은 아니니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끝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의자에 못이 박힌듯 꼼짝을 못했다. 선생님의 음성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고, 내 귀 속에서는 맥박이 뛰는
 소리만이 크게 울렸다. 나는 무서웠으나, 그 두려움과
 공포를 마음 속으로만 느끼고 있었다. 그 날의 나머지
 시간은 엉망이 되었다.

나는 그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학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 속으로 되새겼다. “세상은 반 시간 안에 끝장이
 날 수 있어요. 세상은 반 시간 안에 끝장이 날 수 있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다. 나도 이제 12살이나 되었으니 나의 독립심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모든 두려움을 일일이 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

저녁을 먹은 다음, 나는 숙제를 하려고 내 방의 책상에
 앉았다. 나는 대개는 저녁을 먹고 나서 바로 숙제를 하려
 드는 편은 아니었으나, 아무 것도 세상의 전쟁에 대한
 위협에서 내 마음을 돌려 놓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잠시 후, 숙제를 하다가 싫증이 나서 나는
 주위에 널려 있는 것을 아무 것이나 집어 만지작거렸다.
 종이 몽탕이를 헤쳐 보던 나는, 내가 그 해 초에 청녀회에
 들어갔을 때 받은 서표를 집어 들었다. 그 뒷편에는 한 해
 동안 읽을 독서 목록이 나와 있었다. 나는 그 목록을
 한번도 눈여겨 보지 않았으나, 마침 학교 책은 미루어
 두기로 한 터이므로 그 목록의 처음에 나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읽어 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값진 진주의
 마지막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셉 스미스가 번역한
 마태복음이었다.

내가 23절을 읽을 때 시야가 눈물로 흐려지더니 온화하고
 평안한 느낌이 나를 감싸 주었다.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준 것은 모두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임이라.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요셉 스미스 1:23)

나는 말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의 시대의 표적에 대한
 것을 읽었다. 그러자 내가 그
 때 과학 시간에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졌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셨으며, 세상의
 사건은 예언된 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무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이래, 내 방에서
 혼자서 값진 진주를 책상에
 펴 놓고 있으면 위협적인
 사건이 전개된다 해도 마음에
 평온을 간직하게 되었다.
 나는 세상의 폭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인류와
 마찬가지로 평화를 열망하고
 있으나, 경전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내가
 고난받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경전에서
 기도에 대한 답을 찾고
 있으며, 필요할 때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경전으로
 인해 여러분 생활에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글로 적어 우리에게 보내
 주십시오. 섭표를 어디다
 찍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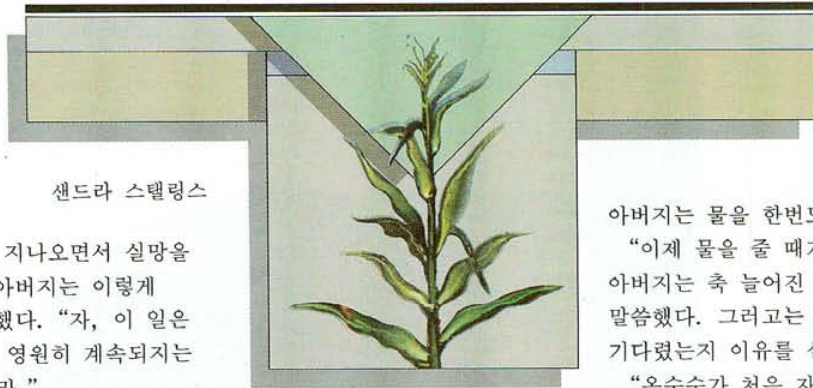
International Magazine, 25th
 floor,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내가 그날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졌다.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셨으며, 세상의 사건은
예언된 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무
것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었다.

23. 보라, 나는 택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이 일을 너희에게
이르노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것은 모두
만드시 일어나야 할 것임이라.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옥수수밭의 교훈



샌드라 스탠링스

내가 성장기를 지나오면서 실망을 겪을 때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자, 이 일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며,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내 자신이 최근에 그러한 처지에 처하여, 나의 몇 가지 문제점이 사라져 주고, 나의 꿈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일어날 가망이 없어 보였다. 나는 때로는 사물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어떤 축복은 지연되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되었다.

부모님을 방문하는 동안 나는 몇 가지 답을 옥수수 밭에서 찾았다.

때는 토요일이었으며, 야채 밭에 물을 대주어야 할 시기였다. 나는 집에 있었으므로, 그 일을 자청했다.

내가 삽을 들고 도랑을 향해 가는데 아버지가 “옥수수 밭만 빼고 다른 곳에는 다 물을 주어라.”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왜 옥수수 밭에는 물을 주지 말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정말 물을 안줘도 돼요?” 하고 내가 물었다. 아버지께서 가서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밭으로 가서 옥수수 밭을 보니, 두 자 정도 자라 있었다. 잎은 시들고 열을 받아 축 늘어지기 시작했다.

보통, 우리는 5월 마지막 주일의 가정의 밤 시간에 밭에 씨를 뿌렸다. 그 달 말 되기 며칠 전에, 서리가 내렸으며, 그런 다음에 여름 날씨가 시작되었다.

금년에 아버지는 완두콩, 강낭콩, 옥수수, 감자, 호박 등을 심으셨다. 우리 밭 작물은 금년의 정상적인 계획에 따라 자라고 있었다. 옥수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작물에는 그 동안 두세번씩 물을 주었었다. 7월이 가까왔는데도,

아버지는 물을 한번도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물을 줄 때가 된 것 같다.”

아버지는 축 늘어진 잎을 살펴보면서 말씀했다. 그리고는 왜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

“옥수수가 처음 자라기 시작할 때 물을 주면, 금방 자라게 되지. 그러나 그렇게 되면 뿌리 조직은 그 키를 지탱할 만큼 발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좋지 못한거다.”

아버지가 내 곁에서 떠나시자,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는 옥수수를 단련시킨 것이며, 그렇게 하여 뿌리와 줄기 사이에 균형이 생겨 잘 발달하게 하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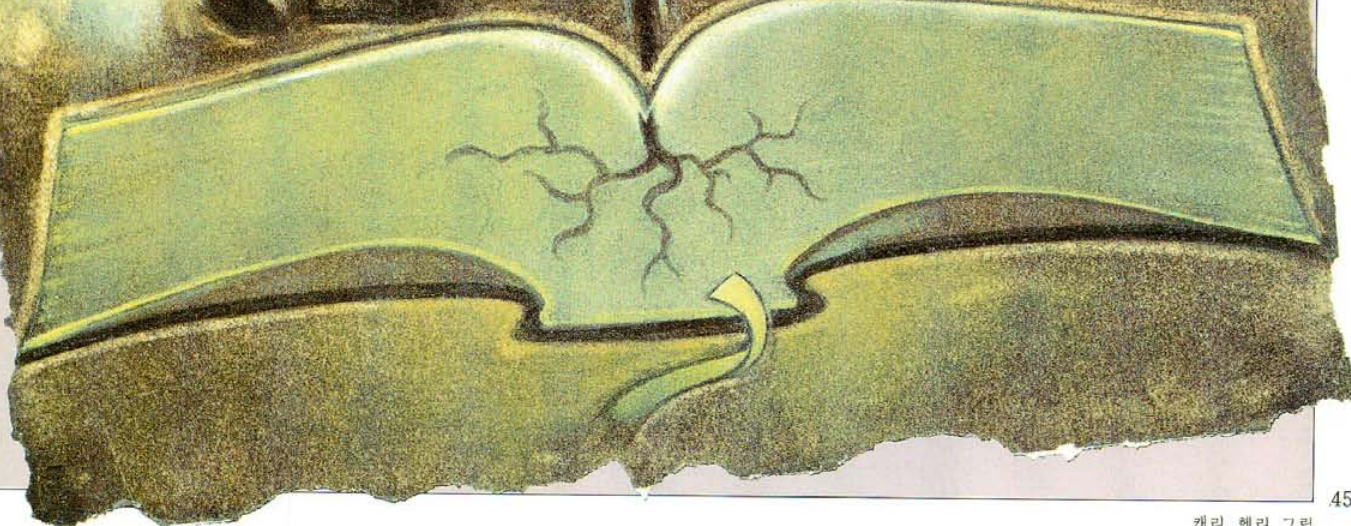
나는 나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고는 내가 참으로 옥수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내 뿌리가 다 자라기도 전에 물을 달라고 떼를 쓴 것이다.

나는 닐 에이 맥스웰 장로가 리스 대학에서 한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세우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주님도 나에게 물도 주지 않은 채 조금 가 보게 하시어 복음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하셨는지도 모른다. 내가 세우지 못한 인내심의 뿌리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관용과 사랑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뿌리가 얇은 내 인생의 여러 면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밭을 가꾸는 구세주께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물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내 인생의 매마른 기간에 대하여 마음을 쓰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맥스웰 장로가 환기해 주셨듯이, 말라기가 예측한 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말라기 3:10) 복을 주실 때가 될 것이다.□

옥

수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씨를 뿌린 후에 두세
번 물을 주었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인 생

세상이 여러분 주위를 빙빙 돌기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딸 이 특별히 때를 잡아 아버지에게 와서 성의껏 대답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솔직한 심정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였다. 이 매력적인 십대의 딸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다. “내 주위에는 악한 영향력이 가득 차 있는 데, 어떻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시는 표준에 따라 살면서도 ‘세상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세력이 있단다.” 하고 아버지가 대답했다. “바로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거지. 원심력이라는 말은 ‘중심으로부터 빠져나간다’는 의미의 라틴말에서 나온 것이고, 구심력이란 ‘중심을 향해 돌진하는 힘’을 말한다.”

“나는 단순한 질문을 하는데 아버지는 복잡한 대답을 해주시는군요..” 실망한 딸은 소리를 질렀다. “좀 단순하게 대답해 주실 수 없으세요?”

“알았다, 애야, 무슨 뜻인지 보여 주마. 자, 조그만 숨덩이를 전축의 턴테이블에 올려 놓아 보자.” 아버지는 숨덩이를 턴테이블의 가장자리에 놓았다. “이제 돌려 보렴.”

그녀가 그렇게 하자, 서너 번 회전하더니 조그만 숨덩이는 바깥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전축을 꺼라.” 아버지가 지시했다. “그리고 숨을 턴테이블 한가운데 놓아라. 이제 다시 전축을 틀어라.”

딸은 지시대로 했고, 전축은 자꾸만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숨덩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원심력과 구심력이란 말을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란단다.” 아버지는 말을 이어 나갔다. “하나의 세력은 물건을 중심으로부터 빠져나가게 하는 데 다른 한 세력은 물건을 중심으로 향하게 한단다.”

그는 딸이 어렸을 때 놀이 동산에서 즐겨 타던 놀이기구를 상기시키면서 미소를 지었다. “너 큰 물레 돌리기를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나니? 너와 큰 아이들은 함께 뭉쳐서 가운데로 들어가 물레판이 돌아갈 때 제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말이다. 그것이 바로 큰 턴테이블과 같은 것이다.”

“아, 그래요.”하고 딸이 대답했다. “일단 그 물레가 돌기 시작하면, 가장자리 부근에 있는 아이들은 숨덩이 처럼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게 돼요. 가운데에서 자리를 잡고



의 영 향 력

시작하면 그 중앙이 안전한 자리입니다.

있으려고 한 아이들은 가운데 있게 되지요.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가장자리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건 참 힘든 일이었어요.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때에는, 나는 항상 가운데 있지 않는 아이들을 조심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떨어져 나갈 때 누구든지 붙잡아 함께 끌고 나가려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인생도 그와 같은 것이라네.” 아버지는 설명했다. “애써 싸워 나가야 하며, 때로 밀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사람까지 끌고 내려가는 경향이 있단다. 반면에, 우리는 끌어내리는 세력에 대항하여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자, 이제 네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어떻게 하면 너는 세상의 방식으로 끌어내리지 않고도 네 친구들과의 사귀음을 즐길 수 있을까. 더욱 높이 오르고 싶으면, 이렇게 행동하고, 밖으로 나가 내려가기를 원한다면, 다르게 행동하게 되지.”

“나는 올라가고 싶어요. 아빠.” 하고 딸이 대답했다.

“나는 나의 목표-영원한 목표에 이르고 싶어요.”

“그것이 네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방향이라면, 최근에 네가 만난 등산 전문가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경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지?”

“아, 나는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기억되는 것은 그들이 미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해 놓고 그들이 어떠한 경우에 처하게 되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잘 결정하여 준비했어요.”

“그들의 팀웍도 나에게 정말 인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은 산을 오르는 데서 크게 곤경에 처하게 되면 그들 자신을 로우프로 함께 연결했어요. 때로는 그들이 연결된 사람들에게 닿아 되기도 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이 밧줄에 매여 위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몸을 의지한 채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을 사진으로 보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또한 의사 소통을 훌륭하게 유지했어요. 그들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항상 의사가 잘 전달되었어요. 그들은 잠재적인 위험에 더 가까이 있을수록,

더 중심을 향해 쏠리는 것 같았어요.”

“누구든 ‘내가 얼마나 가장자리 가까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니?” 하고 아버지가 불쑥 말씀하셨다.

“아뇨! 그와는 반대에요. 그들이 강조한 것은 언제나 ‘내가 얼마나 중심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더니, 훨씬 밝은 표정이 되어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을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이 교훈을 네 질문에 적용시켜 보자.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는 데서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너는 네가 가는 길에 어떤 문제-어떤 유혹이 올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해도, 너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마치 등산가와 마찬가지로.

“너도 팀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매일 같이 너를 위해 그리고 네가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사랑의 ‘로우프’에 연결되어 있다. 너와 팀을 이룬 사람들은 저 세상에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너의 조상들은 너를 염려해 주고 너를 지지해 주고 있다. 친척들과 학교나 교회의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은 언제나 너를 들어올려 주려 한다. 너를 아는 사람 중에서 그들과 더불어 너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진정한 네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된 친구는 결코 너를 밀로 끌어내리지 않고, 항상 너를 들어올린다!

“너의 인생에서 의사 소통은 등산가에게 의사 소통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나는 네가 그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나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네가 기도로 하나님과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을 분명히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단다.

“끝으로 위험이 닥쳐올 때는 항상 중심을 향해 바라보거라. 전축은 디스크 판에 레코드를 걸 대가 중심이 없다면,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네 활동의 회전





때로는 중심을 향해 있기가 정말 힘이 든단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끌어내리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러한 세력을 물리치게 한단다.

반경에 들어 있는 세상이 복음의 쇠막대를 중심으로 닳아 걸려 있다면, 인생의 음악은 너에게 훨씬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네가 품고 있는 이러한 또는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항상 중심을 향해 있거라. 비슷한 환경하에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권고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인 쇠막대에 확고하고 분명하게 닳을 내리고 있다면, 너는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혹의 바람도 너를 멀리 날려 보내지 못할 것이요, 너는 구원과 승영의 문제를 향해 안전하게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축복을 마련해 주셨다. 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네가 다다를 수 있는 높이까지 다다르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너의 순종을 통해 네게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거라. 네가 충실하다면 ‘왕위와 왕국과 주권 그리고 여러 권능과 영도와 모든 높임과 깊음을 상속받을 지어다,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되는 것이니라.’(교성 132:19) 내 딸아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란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람의 마음이 물질적인
면에서는 물론 영적인 면에서도
사람을 실망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성 45 : 26 참조)
많은 사람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절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은
주님께 나아와 그의 짐을 벗어
가볍게 될 수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